

# 1

## 문학의 빛깔



문학

- 01 서정 갈래의 이해
- 02 서사 갈래의 이해
- 03 극 갈래의 이해
- 04 교술 갈래의 이해

### 대단원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 대단원 핵심 역량

- 문화 향유 역량은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이다.
-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여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 대단원 길잡이

## 1. 문학의 빛깔

### 단원 한눈에 보기

#### ① 서정 갈래의 이해

- 서정 갈래의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 시 〈슬픔이 기쁨에게〉를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 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 이해하기

이기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 〈슬픔이 기쁨에게〉를 감상하며 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를 이해한다.

#### ② 서사 갈래의 이해

-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 소설 〈달밤〉을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 소설 〈달밤〉을 감상하며 서사 갈래의 특징을 이해한다.

#### ③ 극 갈래의 이해

- 극 갈래의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 희곡 〈파수꾼〉을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현실을 우의적으로 비판한 희곡 〈파수꾼〉을 감상하며 극 갈래의 특징을 이해한다.

#### ④ 교술 갈래의 이해

-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 고전 수필 〈통곡할 만한 자리〉를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글쓴이의 독특한 관점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고전 수필 〈통곡할 만한 자리〉를 감상하며 교술 갈래의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한다.

- 이 단원을 배운 후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예시 답**
- 시를 멋지게 낭송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각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고 싶다.

- 이 단원과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 읽어 봅시다.

- 책 제목 **예시 답**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글쓴이 **예시 답** 윤동주
-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느낀 점 **예시 답** 〈서시〉, 〈별 헤는 밤〉 등에 사용된 ‘별’의 의미를 알 듯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 그 안에 담긴 뜻이 궁금했다.

# 01 서정 갈래의 이해

## 소단원 학습 흐름

시적 화자와 청자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한다.



생각과 정서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그 효과를 이해한다.



문학의 본질을 설명한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생활 생각 열기

나는 문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 시를 가장 좋아해.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

비교적 길이가 짧은 편이거든.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시는 운율을 지니기 때문

그런데 시는 금방 읽기는 해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

시는 언어를 함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

왜 그런지 몰라도 시에 쓰인 말은 일상에서 쓸 때와는 느낌이 달라.

시어는 일상어에 비해 음악성(운율), 함축성, 회화성(심상) 등이 두드러짐.

분명 같은 단어가 맞는데 말이야…….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도움말** 서정 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인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시의 운율, 시어의 함축성 등에 주목하여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 소단원 미리보기

### ●문학의 형상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요소를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

### ●문학의 갈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문학 작품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문학적 유형의 틀

#### (1) 이분법

- 언어의 형태에 따라: 운문 문학, 산문 문학
- 언어의 전달 방식에 따라: 구비 문학, 기록 문학

#### (2) 삼분법

- 서정(노래), 서사(이야기), 극(행동) 갈래로 구분

#### (3) 사분법

-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로 구분

#### (4) 기타 구분 방법

- 창작 시기에 따라: 고전 문학, 근대 문학, 현대 문학
- 창작 목적에 따라: 순수 문학, 참여 문학
- 예술성에 따라: 순수 문학, 통속 문학

## 개념 학습

### ● 문학의 본질

#### 1 문학의 개념

- (1) 문학은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 (2) 문학은 다양한 정신 활동의 결과물이 일정한 문학적 언어의 질서를 통해 표현된 문화 양식의 하나이다.

#### 2 문학의 속성

문학 작품은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내용’과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문학의 내용	문학의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구현된 정서, 사상, 사건, 주제 등</li> <li>• 작가의 문제의식, 가치관, 세계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를 형상화한 언어의 표현 양식</li> <li>• 다양한 언어적 형상화 방법</li> </ul>

#### 3 문학의 유기성

- (1)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
- (2) 문학을 수용, 생산할 때에는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 4 문학의 갈래

- (1) 문학의 갈래는 문학 작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기본 갈래와 하위 갈래가 있으며, 서양 용어로 ‘장르(Genre)’라고 한다.
- (2) 문학의 기본 갈래는 문학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의 네 가지로 나눈다.
- (3) 문학의 하위 갈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나며 작품의 개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b>서정 갈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문학 양식</li> <li>• 하위 갈래: 고대 가요, 민요, 한시, 향가, 고려 가요, 시조, 신체시, 현대시 등</li> </ul>
<b>서사 갈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이 세계와 대립하면서 전개되는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문학 양식</li> <li>• 하위 갈래: 설화,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li> </ul>
<b>극 갈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과 세계의 대립을 그리지만 서술자 없이 대사와 행동으로 보여 주는 문학 양식</li> <li>• 하위 갈래: 가면극, 인형극, 창극,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등</li> </ul>
<b>교술 갈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의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고 성찰하는 특징을 지닌 문학 양식</li> <li>• 하위 갈래: 설(說), 기(記), 일기, 편지, 기행문, 수필 등</li> </ul>

## ● 서정 갈래의 이해

### 1 서정 갈래의 개념과 하위 갈래

- (1) 개념: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문학 갈래를 말한다.
- (2) 특성: 서정 갈래는 음악적 요소(운율), 회화적 요소(심상), 의미적 요소(주제)로 이루어지며, 시적 화자를 설정하여 정서를 드러낸다.
- (3) 하위 갈래: 고대 가요, 민요, 한시, 향가, 고려 가요, 시조, 신체시, 현대시 등이 있다.

### 2 화자와 어조

- (1) 화자: 시에서 말하는 이를 가리키며, 서정적 자아라고도 한다.
- (2) 어조: 화자의 목소리로,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 3 서정 갈래의 음악적 요소(운율)

기본적으로 유사하거나 같은 음운, 단어,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함.

음보율	끊어서 읽는 말의 덩어리(음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함.
음수율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음위율	같은 소리가 비슷한 위치에서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함.

### 4 서정 갈래의 표현 방법

비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
강조법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 점층법, 열거법, 영탄법 등
변화법	문장의 구조에 변화를 주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 반어법, 역설법, 도치법, 설의법 등
시상 전개 방법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선경 후정, 기승전결, 반복과 대조의 방식 등을 활용하여 시인의 생각이나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함.
감정 이입	화자가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그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 슬픔이 기쁨에게 \_ 정호승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교훈적, 의지적, 비판적
제재	기쁨, 슬픔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li> <li>•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대임을 주고자 함.</li> <li>•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li> </ul>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하여 표현함.</li> <li>② 낮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하여 신선한 느낌을 부여함.</li> <li>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슬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김.</li> <li>④ 구체적인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상을 전개함.</li> </ol>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 추구

### 작품 해설

이 시는 상반된 감정인 '슬픔'과 '기쁨'을 '나'와 '너'로 의인화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더불어 사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로, '슬픔'은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시적 발상의 측면에서는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이기적인 삶을 반성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발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 작가 소개 정호승(1950~ )

시인. 경남 하동 출생.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가 당선되고,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참성대〉가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현대 사회의 그늘진 단면에 관심을 두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내는 애정을 따뜻한 시어로 그려 냈다. 주요 작품으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맹인 부부 가수>, <수선화에게> 등이 있다.



# 01 서정 갈래의 이해

## 슬픔이 기쁨에게 \_ 정호승

시적 대상(기쁨)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겠다'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시적 화자(슬픔)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역설법, 이기적인 사랑보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고난과 시련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이기적인 존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소외된 이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얼굴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고통을 외면함.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최소한의 관심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함.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름.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슬픔'과 동일한 의미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가진 자에게는 행복을, 소외된 이에게는 고통을 주는 존재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소외된 이들을 감싸는 존재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기쁨을 포용하는 슬픔의 자세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힘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자 함.



### 학습 point

1. 작품의 갈래상 특징
2. 작품의 문학적 형상화 방법
3. 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

### » '슬픔'과 '기쁨'의 의미 및 표현상의 특징

슬픔	기쁨
'나'	'너'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소외된 사람 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 는 존재	소외된 이들 에게 무관심 한 이기적인 존재

- '슬픔'과 '기쁨'을 '나'와 '너'로 의인화함.
-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 이 시에 나타난 역설적 발상

일반적으로 '기쁨'은 긍정적인 것, '슬픔'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도리어 슬픔이 기쁨을 비판하고 안타까워하는 역설적 상황 속에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슬픔과 기쁨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주제 형상화 방법

낯설게 하기 기법	→ '슬픔'과 '기쁨'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형상화되어 신선한 느낌을 줌.
추상적 대상의 의인화 및 말 건네기 방식	→ 추상적 대상인 '슬픔'과 '기쁨'을 '나'와 '너'로 의인화하여 '나'가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역설적 표현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화자의 태도

1~6행	슬픔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며 기쁨에게 슬픔의 의미를 알려 주고자 함.
7~13행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참다운 사랑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함.
14~19행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과 화합이 이루어진 삶을 추구함.

운율 형성 요소

음보의 반복	4음보의 반복 예 나는 이제 / 너에게도 / 슬픔을 / 주겠다. 사랑보다 / 소중한 / 슬픔을 / 주겠다.
음운의 반복	'ㄴ' 음운의 반복 예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어미의 반복	'-겠다'의 반복 예 주겠다, 멈추겠다, 걸겠다, 걸어가겠다 등

시어와 시구의 상징적 의미

슬픔	• 시적 화자인 '나' •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타적인 존재
기쁨	• 시적 대상(청자)인 '너' • 소외된 이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
겨울밤 거리	현실적 고난, 힘겨운 삶
할머니, 동사자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
기다림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함박눈	약자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강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존재
봄눈	약자를 감싸는 존재

point ①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문장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었다.
- ② 추상적 관념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였다.
- ③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 ④ 경어체를 통해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 ⑤ 명령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point ②

02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음보를 반복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겠다'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나'가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가 처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 주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point ③

03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즉 '슬픔'은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긍정적인 존재로, '기쁨'은 소외된 사람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로 제시함으로써 소외된 사람들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노래하고 있다.

- ① '겨울밤 거리'와 '살아온 추위'는 소외된 사람들이 겪어 온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 ②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는 소외된 사람이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때를 의미한다.
- ③ '할머니'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에 해당한다.
- ④ '흠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은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기쁨'의 모습에 해당한다.
- ⑤ '기다림'은 소외된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내가 읽은 <슬픔이 기쁨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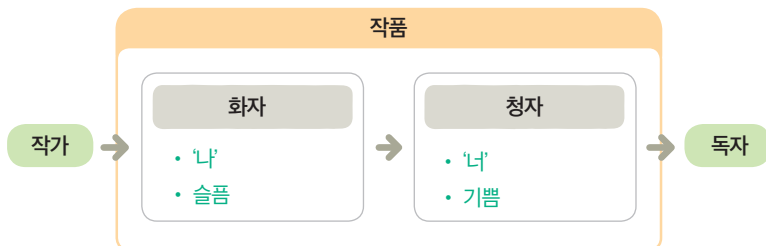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b>슬픔</b> 을/를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b>기다림</b> 을/를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b>걸어가</b> 고자 함.

1 서정 갈래의 문학적 형상화 방법 탐구하기

1 <슬픔이 기쁨에게>의 화자와 청자를 살펴보고 이 작품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 보자.

(1) 이 작품의 화자와 청자를 찾아보자.



교과서 날개 보기 서정시에서 작가는 독자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적 화자를 설정한다.

(2) 다음 시구에서 알 수 있는 청자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청자의 모습**

**예시 답**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01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의 방식
- ② 공간의 이동
- ③ 시간의 이동
- ④ 선경 후정 방식
- ⑤ 말 건네기 방식

02 이 시의 화자와 청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의 화자는 청자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이 시의 화자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는 '나'이다.
- ③ 이 시에서는 '너'를 구체적인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 ④ 이 시의 청자는 화자의 요구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⑤ 이 시의 화자는 강한 어조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3 이 시에 제시된 '할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약자
- ② 전통적인 여인상
- ③ 기회주의자의 전형
- ④ 권력층에 아부하는 존재
- ⑤ 현실에 분노하는 소시민

04 이 시의 흐름을 고려하여 '가마니 한 장'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3) 청자의 행동에 대해 화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써 보자.

-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예시 답** •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4) (2)와 (3)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이 작품의 제목을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정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예시 답** • 슬픔이 기쁨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슬픔과 기쁨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역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기쁨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슬픔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이해하며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1)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작가의 문학적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일반적  
인식

**예시 답** 슬픔은 회피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고, 기쁨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감정이다.

❖ 문학적 인식

작가의  
인식

**예시 답** 이 세상의 고통과 함께하지 못하는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소외된 사람들, 나아가 소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쁨과도 함께하고자 하는 슬픔은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이타적인 존재이다.

### 참고 자료

#### 문학 작품에서의 형상화

신문 기사나 논문 등의 글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면, 문학은 형상화의 과정을 거쳐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형상화는 문학을 문학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문학을 다른 글과 구분해 주는 기준이 된다.

작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이나 심리를 나타낼 때에도 작가만의 개성적인 형상화 기법을 통해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활동 응용 문제

**05**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방황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을 도피하며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 ④ 현실의 문제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며 한탄하고 있다.
- ⑤ 사회적 소외 계층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06** 이 시의 제목이 지닌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이 시는 미완성의 문장을 제목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와/과 궁금증을 유발하고 슬픔과 기쁨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07** 이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슬픔’의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적 고통의 극한에서 유발되는 정서
- ②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존재
- ③ 소외된 사람들의 자포자기에서 촉발되는 정서
- ④ 합리적 이성을 기반으로 현실을 분석하는 존재
- ⑤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

(2) '함박눈'과 '봄눈'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함박눈	봄눈
<p><b>예시 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진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li> <li>• 햇빛은 이들에게 추위와 고통을 주는 대상</li> </ul>	<p><b>예시 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역할</li> <li>•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li> </ul>

 교과서 날개 보기 시어의 함축성 |

함축성이란 표현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않고, 문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시어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닌 문맥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3) 다음 시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예시 답**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3 다음 시구를 낭독해 보고, 운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예시 답**

- 4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 '겠다'라는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 '나' 음운을 반복하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08 '함박눈'㉠과 '봄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을 고려하면 ㉡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 ㉡과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④ 청자의 입장에서는 ㉠, ㉡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⑤ 주제를 고려하면 ㉠은 멈춰야 하는 대상이다.

09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 동일한 어미의 반복
  - ㉡ 동일한 음보의 반복
  - ㉢ 동일한 음운의 반복
  - ㉣ 동일한 글자 수의 반복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0 이 시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이어 가야겠어.
- ② 자유를 억압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해야겠어.
- ③ 사랑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야.
- ④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어.
- 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아야겠어.

4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파악해 보자.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작품에서 찾아 정리해 보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예시 답 시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음.(‘슬픔’과 ‘기쁨’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예시 답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2) (1)에서 살펴본 표현 방법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등장시켜 그 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는 언뜻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구절은 진정한 의미의 슬픔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 주겠다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역설과 반어
역설		겉으로 보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궁극적으로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반어		표현된 것과 표현의 의도가 상반된 진술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가 되도록 하는 표현 방법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김소월, <진달래꽃>)

## 2 서정 갈래의 특징 정리하기

1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정 갈래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예시 답**
- 가상의 존재인 시적 화자가 존재한다.
  -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한다.
  -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11 이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시어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의 감정을 대상물에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실제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2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와 유사한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 ① 내 마음은 호수요
- ②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③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 ④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13 서정 갈래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상을 전개하는 서술자가 존재한다.
- ②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한다.
- ③ 운율이 있는 언어를 압축적으로 사용한다.
- ④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 ⑤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시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낸다.

### 3 문학의 본질 탐구하기

1 다음 글을 읽고, 문학 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를 이해해 보자.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그 가운데 예술은 표현 욕구가 반영된 주요한 활동이다. 생각과 감정에는 본래 형태가 없는데 예술가는 여기에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예술을 창조한다. 이 과정이 형상화이다. 생각과 감정을 소리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음악이 되고, 색채와 형태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미술이 되며, 몸짓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무용이 되듯이 언어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된다. 문학은 이처럼 언어라는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예술이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여 형식이라 한 것이다. /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를 유기적 관계라고 한다.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 낼 수 없는

(1) 문학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자.

**예시 답** 문학은 내용, 형식, 표현으로 이루어진다.(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한다.)

(2) (1)을 바탕으로 하여 <슬픔이 기쁨에게>의 구성 요소들이 작품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 이 작품은 '슬픔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 운율, 의인법과 역설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가치 있는 내용을 이에 어울리는 적절한 형식과 표현을 통해 그려 내고 있으며, 구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의 구조

- 구조의 개념: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총괄하는 형태이다.
- 구조의 특성: 구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며(전체성), 구조를 이루는 각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 관련을 맺는다(유기성).

활동 응용 문제

1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학의 내용, 형식, 표현은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
- ② 문학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을 통해 구현한다.
- ③ 문학은 다른 예술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여 형상화한다.
- ④ 문학은 인간의 생각, 감정을 추상화의 기법으로 제시한다.
- ⑤ 문학이 다루는 내용은 공동체나 개인의 진실과 관련이 깊다.

15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 '내용, 형식, 표현'으로 나눌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 내용: 가치 있는 주제
- 형식: □□
- 표현: □□□

16 <슬픔이 기쁨에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는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
- ② 이 시는 '-겠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내용을 강조한다.
- ③ 이 시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통념에 근거하여 내용을 형상화한다.
- ④ 이 시는 '나'가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가치 있는 내용을 표현한다.
- ⑤ 이 시는 '슬픔'이 '기쁨'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용하여 주제를 제시한다.

소단원  
정리하기

● 서정 갈래

개념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 양식

하위 갈래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민요, 한시, 현대시 등

● 시의 특징

- 시적 가 등장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드러낸다.
- 운율을 가진 언어를 활용하여 을 형성한다.
- 비유와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심상을 활용하여 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문학의 본질

- 문학이란  있는 주제를 언어 형식에 어울리는 표현 방법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다.
-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을 이루게 된다.

● <슬픔이 기쁨에게>의 시적 화자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슬픔'이 갖는 긍정적 가치를 역설하고, 이기적인 '기쁨'에게 이를 알래워 주고자 한다.

어휘  
점검하기

- 다음은 화자의 정서 또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제시된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 보기 ●

애상

연민

냉소

(1)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

(2)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

(3)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함.

→

유배(배) / 굶주림(주) / 주유(유) / 좌욕(좌) / 좌상(좌) / 좌측(좌) / 유추(유) / 유추(유) / 통공(공)



## 슬픔이 기쁨에게 \_ 정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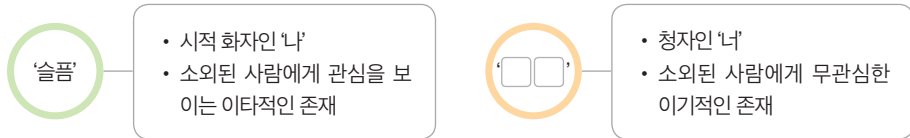
###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교훈적, 의지적, 비판적
제재	기쁨, 슬픔
주제	□□□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상적인 개념을 □□□하여 표현함.</li> <li>낮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하여 신선한 느낌을 줌.</li> <li>□□□ 표현을 통해 슬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김.</li> <li>구체적인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li> </ul>

### ● 시상 전개 과정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을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을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 ● '슬픔'과 '기쁨'의 의미



### ● 표현상의 특징

□□□하기 기법	'슬픔'을 시적 화자인 '나'로 설정하고 '기쁨'을 청자인 '너'로 설정하여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전환함.
대립적인 시어 사용	'슬픔'(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타적인 존재, 긍정적) ↔ '기쁨'(소외된 사람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 부정적)
역설적 표현의 사용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 겉으로 보기에는 □□된 말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

공감 '내'를 '너'로 '말'을 '말'로 '문'을 '문'으로 '행'을 '행'으로 '행'을 '행'으로

[01~05]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나 생각과 감정에는 본래 형태가 없는데 예술가는 여기에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예술을 창조한다. 이 과정이 형상화이다. 생각과 감정을 소리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음악이 되고, 색채와 형태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미술이 되며, 몸짓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무용이 되듯이 언어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된다. 문학은 이처럼 언어라는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예술이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여 형식이라 한 것이다.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를 ㉡유기적 관계라고 한다.

㉢ 중요

01 (가)를 감상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상적 대상인 ‘슬픔’과 ‘기쁨’을 사람처럼 표현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 ②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처럼 모순된 문장을 사용한 이유를 분석해 본다.
- ③ 화자가 ‘할머니’와 ‘동사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분석해 본다.
- ④ ‘-겠다’를 반복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내용과 형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 ⑤ 제목을 참고하여 ‘슬픔’이 ‘기쁨’에게 해 주려는 것을 분석한 뒤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중요

02 (나)의 관점으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슬픔’, ‘기쁨’ 등 형태가 없는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가)는 언어라는 형식을 수단으로 하여 내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가)는 가치 있는 주제를 색채, 형태, 몸짓 등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가)는 주제에 적합한 시어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유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가)는 화자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치 있는 내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수능형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의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로 나눌 수 있다. 서정 갈래는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문학 양식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재현보다는 정서적 감응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서사 갈래는 주인공이 세계와 대립하면서 전개되는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다. 극 갈래는 서사 갈래처럼 주인공과 세계의 대결을 그리지만 서술자 없이 대화와 행동으로 직접 보여 주는 양식이다. 교술 갈래는 외부의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고 성찰하는 특징을 지닌 양식이다.

- ① (가)는 ‘걸어가겠다’에서 시적 화자의 행동이 나타나므로 극 갈래이다.
- ② (가)는 주인공인 ‘나’가 ‘너’와 대립하는 대결 구도가 나타나므로 서사 갈래이다.
- ③ (가)는 ‘슬픔’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상의 의미를 성찰하는 교술 갈래이다.
- ④ (가)는 ‘슬픔’과 ‘기쁨’이 대결하고 있으므로 서사 갈래와 극 갈래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는 ‘슬픔’을 ‘사랑’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화자의 주관적 정서가 드러나므로 서정 갈래이다.

0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족의 이상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 ②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규명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 ③ 인간과 자연이 근원적으로 합일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 ④ 세상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 ⑤ 이 땅의 역사적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수능형

05 ㉠의 측면에서 (가)와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 사랑하는 이여 /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① (가)는 풍자적 기법, <보기>는 비유적 기법을 통해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 ② (가)는 동일한 시어를, <보기>는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 ③ 두 작품 모두 청자를 설정하여 말 건네기를 함으로써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 ④ 두 작품 모두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 ⑤ 두 작품 모두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 배경지식 플러스

시의 운율

'낮설게 하기'의 의미

작가의 다른 작품  
둘러보기

다른 작가의 작품과  
연어 읽기

### 1 시의 운율

시는 리듬(rhythm)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다른 장르들과 특징적으로 구별된다. 리듬, 즉 음악성은 우리 인간의 삶이나 이런 삶 속에서 접하는 자연의 순환 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가 문학의 언어이면서 생활의 언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줄글로 쓰인 산문을 외우는 것보다 리듬이 있는 시를 외우기가 비교적 수월하며 시를 외우기보다는 가락에 얹혀져 있는 노래 가사를 익히기가 쉽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토록 열심히 배웠던 시 한 편을 제대로 암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노래 한 곡 정도는 가사를 보지 않고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옛사람들은 천자문을 가락에 맞추어 외웠으며, 우리도 어린 시절 구구단을 배울 때 역시 리듬에 맞추어 외웠다. 그 이유는 노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성에서 연유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음악적인 언어를 보다 잘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나름대로의 리듬(운율)을 가지고 있어서 리듬에 언어를 맞추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리듬에 맞추어 언어를 표현하고, 이를 읽는 사람 역시 표현된 리듬과 같거나 유사하게 이 언어를 받아들인다. 더구나 언어적 표현은 인간의 유희적 본능과 결부되어 놀이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숫자풀이 노래’나 ‘꼬리말 잇기’ 등과 같이 유년 시절의 동요나 동시 등은 인간의 유희적 본능과 결부되어 불리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은 언어의 음악적 속성과 인간의 유희 본능이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아이들은 유희적 인 언어 놀이를 통해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기도 한다.

노래하기의 음악적 문학 속성은 심미성을 지닌 시와 같은 고급 문학을 이해하는 특성이 되기도 하지만 본능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동요의 단계에서부터 깊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줄글보다는 리듬이 있는 언어를 활용하게 되며, 리듬 있는 언어 활동은 우리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택되게 된다.

- 김대행 외, 《문학 교육 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2 '낮설게 하기'의 의미

'낮설게 하기'는 러시아의 시클롭스키가 주장한 것으로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습관화된 틀에 갇혀 있는 사물이나 관념을 낮설게 표현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신의 습관적 태도에 충격을 가하여 낯익은 대상을 오히려 낯설게 만들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며, 이를 통해 심미적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어나 역설, 도치 및 행이나 연 구분을 낮설게 하는 방법 등으로 실현된다. <슬픔이 기쁨에게>에서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뒤집어 놓음으로써 슬픔과 기쁨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 3 작가의 다른 작품 둘러보기

#### 맹인 부부 가수

\_ 정호승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 거리를

희망을 상징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 부르니

눈 맞으며 세상 밖을 돌아가는 사람들뿐

타인의 삶에 무관심한 사람들

등에 엮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갈 길은 먼데 함박눈은 내리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눈사람을 기다리며 노렐 부르네

세상 모든 기다림의 노렐 부르네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가는 사람들을

암울한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노래가 길이 되어 앞질러 가고

돌아올 길 없는 눈길 앞질러 가고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렐 부르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노래를 부름.

눈사람을 기다리며 노렐 부르며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맹인 부부 가수 - 맹인 부부 가수가 희망을 전해 줌.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었네

→ 이 작품은 소외된 인물들인 맹인 부부 가수의 모습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까지 포용하면서 따뜻한 세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슬픔이 기쁨에게>와 유사하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관조적, 성찰적
제재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을 절제한 차분한 어조로 노래함.</li> <li>• '기다림', '희망' 등의 관념을 '눈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함.</li> </ul>		
주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4 다른 작가의 작품과 엮어 읽기

#### 우리가 눈발이라면

\_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뼛쭈뼛 훑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무가치한 존재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 ①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 ②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이 되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 ③

→ 이 작품은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자는 따뜻한 마음을 함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슬픔과 고통을 주는 '진눈깨비'와 희망과 기쁨을 주는 '함박눈'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눈'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슬픔이 기쁨에게>와 유사하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함축적, 서정적
제재	함박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눈깨비'와 '함박눈'의 대립 구도로 시상을 전개함.</li> <li>• 당부와 다짐의 어조로 주제를 강조함.</li> </ul>		
주제	따뜻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		

# 02 서사 갈래의 이해

## 소단원 학습 흐름

등장인물의 특징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배경의 역할과 결말의 의미를 정리하고, 그 문학적 효과를 알아 본다.



서사 갈래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갈래적 특성을 이해한다.

## 생활 생각 열기

어릴 때 나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를 참 좋아했어.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할머니께서 썰 주신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야기 속에 푹 빠지곤 했지.

이야기 속 주인공의 말과 행동, 사건이 모두 진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는 옛날이야기들을 모두 실제라고 믿었지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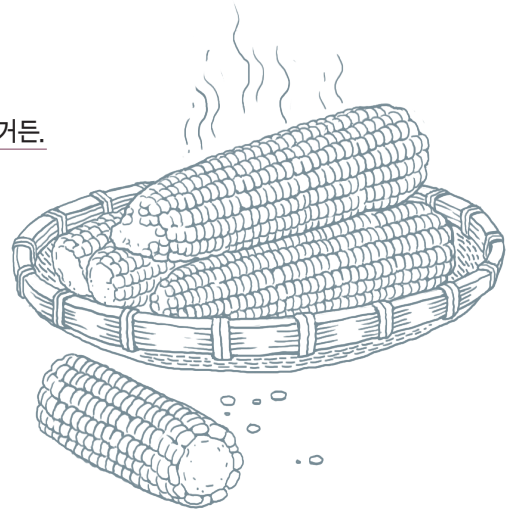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도 소설을 읽을 때면 비슷한 느낌이 들어.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

소설 속 인물과 사건이 정말 현실 어딘가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 싶거든.

소설은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

소설 속에는 현실이 담겨 있는 걸까?



 **도움말**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인 소설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소설은 허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 즉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 소단원 미리보기

### ●배경의 역할

-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
- 작품의 주제를 부각한다.
-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신빙성(사실성)을 높인다.
-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갈등의 유형

- 내적 갈등: 인물 내면의 분열된 심리로 인한 갈등
- 외적 갈등

인물 ↓ 인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로 일어나는 갈등 예) 이태준, <돌다리>
인물 ↓ 사회	인물과 그가 속한 사회 환경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갈등 예)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인물 ↓ 운명	인물의 삶이 운명의 힘에 의해 좌우되어 일어나는 갈등 예) 김동리, <역마>
인물 ↓ 자연	인물과 자연환경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갈등 예) 김정환, <사하촌>

### ●문체의 구성 요소

서술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함.
묘사	서술자가 객관적 위치에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그려 내듯 보여 줌.
대화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말

## 개념 학습

### ● 서사 갈래의 이해

#### ① 서사 갈래의 개념과 하위 갈래

- (1) 개념: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한 문학 양식이다.
- (2) 특성: 특정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어떤 인물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의미 있게 꾸며 낸 이야기이다.
- (3) 하위 갈래: 설화,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이 있다.

### ● 소설의 이해

#### ① 소설의 개념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 문학의 한 갈래이다.

#### ② 소설의 특징

- (1) 산문성: 소설은 산문으로 이루어진 문학이다.
- (2) 개연성과 허구성: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 (3) 진실성: 소설은 허구를 통해 인생의 참된 모습과 진실을 드러낸다.
- (4) 서사성: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성이 있다.
- (5) 예술성: 소설은 예술의 한 형식으로 형식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소설의 3요소

주제 (내용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독자에게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li> <li>• 당대의 사회 현실을 다루는 구체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시대나 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성을 구현하는 보편성도 지니고 있어야 함.</li> </ul>
구성 (형식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의 사건을 서술한 것</li> <li>• '누가(인물)', '언제/어디에서(배경)', '무엇을(사건)' 하였는가를 다룸.</li> <li>• 소설의 구성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단: 인물 소개, 배경 묘사, 사건의 실마리 제시</li> <li>- 전개: 갈등 표출, 중심 사건의 구체적 발전</li> <li>- 위기: 갈등 고조·심화, 위기감 조성</li> <li>- 절정: 갈등 최고조, 해결의 전환점</li> <li>- 결말: 갈등 해소, 사건의 마무리</li> </ul> </li> </ul>
문체 (표현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에 나타나는 작가의 개성</li> <li>• 작가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문장 길이로 서술하는가와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짐.</li> </ul>

#### 4 소설의 인물

- (1) 개념: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 사건과 행동의 주체
- (2) 종류: 역할에 따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 성격의 개성에 따라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성격의 변화의 유무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3)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간접 제시	인물의 모습이나 행위를 묘사하거나 인물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보여주기(showing), 극적 제시라고도 함.
직접 제시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말하기(telling), 분석적 제시라고도 함.

#### 5 소설의 시점

- (1) 서술자: 작가가 만들어 낸 허구적 대리인, 서사 내용과 독자 사이에 개입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
- (2) 시점의 종류

1인칭 주인공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시점</li> <li>•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들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줌.</li> <li>• '나'의 입장에서만 서술하므로 주관적이며 다른 인물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는 없음.</li> </ul>
1인칭 관찰자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 속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시점</li> <li>• 주인공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지 않아 긴장감과 신비감을 줄 수 있음.</li> <li>• 관찰자인 '나'의 눈에 비친 것만 서술하므로 서술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독자들이 서술 내용을 근거로 인물들의 심리나 성격, 사건 전개 과정을 추측하여 판단하게 함으로써 소설의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li> </ul>
전지적 작가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 전개를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li> <li>• 작가의 사상과 인생관이 직접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으나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li> </ul>
작가 관찰자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 태도로 관찰한 사실을 전달하는 시점</li> <li>• 서술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서술자가 일체의 해석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므로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li> </ul>

## 달밤 \_ 이태준

###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애상적
배경	1930년대 서울 성북동
제재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의 삶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단: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나'는 우둔하지만 친진한 황수건을 만남.</li> <li>• 전개: '나'는 황수건과 자주 대화를 하며 신문 원배달이 되는 것이 황수건의 평생 소원임을 알게 됨.</li> <li>• 위기: 신문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빼앗긴 황수건에게 '나'는 참외 장사 밀천을 대 줌.</li> <li>• 절정: 황수건은 참외 장사 밀천마저 까먹고 포도를 훔쳐 '나'에게 주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끌려감.</li> <li>• 결말: 담배를 피우며 달밤에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목격하게 됨.</li> </ul>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다양한 일화를 나열한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함.</li> <li>② '달밤'이라는 배경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냄.</li> <li>③ 세밀한 묘사를 통해 사건과 인물을 선명하게 드러냄.</li> </ol>
주제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 작품 해설

학교 급사, 신문 배달원, 참외 장사 등을 하지만 계속 실패를 하면서 상처를 입는 '황수건'의 삶을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가 대화와 일화를 통해 서술한 작품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힘든 시기에 우둔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주인공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 '나'의 따스한 시선이 돋보인다.

### 작가 소개 이태준(1904~?)

소설가. 호는 상허. 1925년 도쿄에서 투고한 단편 <오몽녀>가 <조선문단>에 입선작으로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며, 세태의 변화에 밀려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그려 낸 작품들을 썼다. 주요 작품으로 <복덕방>, <패강령>, <해방 전후> 등이 있다.



## 02 서사 갈래의 이해

### 달밤 \_ 이태준

#### 발단

가 성복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  
작품의 공간적 배경 1인칭 서술자  
 밑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 하였다.

뒤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  
 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주인공 ‘나’가 성복동을 시골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복동의  
황수건에 대한 ‘나’의 단적인 평가가 드러남.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복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  
 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  
 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  
 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  
『』: 황수건에 대한 ‘나’의 긍정적 시선  
 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어리석고 둔하면서도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손님 → ‘나’는 첫 만남에서 황수건이 못난이임을 알게 됨.

**발단** 성복동으로 이사 온 ‘나’는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을 만남.

#### 전개

나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  
황수건과 ‘나’의 첫만남  
 당에서 짹 지르는 소리로, / “아, 이 닥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을 늘어놓지 않고 잡담을 늘어놓지 않고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원배달부가 아닌 보조 배달부이기 때문 황수건의 직업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황수건의 어리숙함을 보여 줌.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 학습 point

- 1 서술상의 특징
- 2 소설의 구성 단계별 특징과 내용
- 3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읽기 중 활동 | ‘나’는 ‘성복동’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예시 답** 사대문 밖에 위치한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등장인물

‘나’	서술자. 황수건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봄.
황수건	주인공. 우둔하지만 천진한 품성을 지닌 인물

읽기 중 활동 | ‘나’의 집에 온 신문 배달부가 합비를 입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 신문 배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채용된 배달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 교과서 어휘

**대치(大處)** 도회지.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  
**문(門)안** 사대문 안. 조선 시대에 서울에 있던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의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 안쪽을 이룸.  
**합비** 일본말로 ‘등이나 깃에 상호가 찍힌 겹옷’을 이르는 말.

“그런데요, 왜 이렇게 꾀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었더면 이 아래 큰 개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는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남.  
 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뽀뽀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짱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  
 구 대가리다. /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 / “뭘입쇼, 이게 제 업인덱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았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았는데,  
해야 할 일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꼭듯이** 내 성명을 댔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능청스럽고 너스레 좋은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남.

“댁엔 개가 없구먼입쇼?” / 한다.  
예의를 갖추어

» 황수건과의 첫만남에서 ‘나’가 황수건을 대하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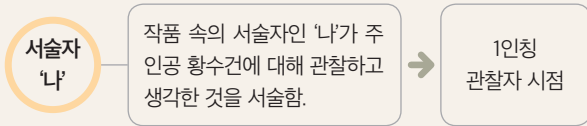
‘나도 꼭듯이 내 성명을 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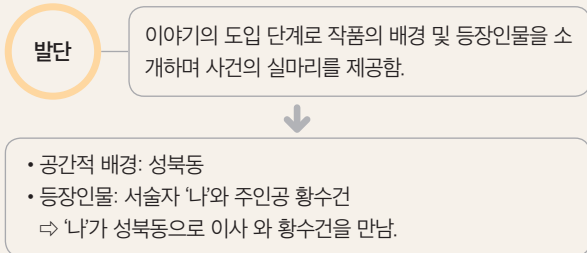
황수건은 우둔하여 ‘못난이’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천진스럽고 순박한 시골 정취를 돋워 주는 인물이라고 여기며 수용적인 태도를 취함.

**교과서 내용 확인**

● 서술자와 시점



● (가)의 구성 단계



● 황수건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 ‘뽀뽀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확인 문제**

» 정답 및 풀이 05쪽

point ①

01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논평하고 있다.
- ② 신빙성 없는 서술자가 등장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작품 속 서술자가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시점을 달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그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point ②

02 소설의 구성 단계상 (가)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 ② 사건이 구체화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③ 사건의 극적 반전의 계기가 제시되고 있다.
- ④ 갈등이 해결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 ⑤ 인물을 소개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point ③

03 황수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단적으로 제시한 단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 📷 감상하고 활동하기

다 “아직 없소.” / 하니,

“개 끄까짓 거 두지 마십쇼.” / 한다.

“왜 그렇소?” /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 반응

“왜 그렇소?” /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덩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덱쇼, 아, 신문을

'은행'의 전 용어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

“왜?”

“막 깨물라고 덤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황수건의 천진난만한 때문에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뺨을 뚝 떼어 대야 할 텐데…….”

남에게 뺨을 얻어맞는 것을 이르는 말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껴 반비레로 작고 가느다랗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

다.

“어서 곤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황수건은 '나'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함.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뚱쇼.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걸입쇼.”

하더니 돌아갔다.

→ 신문 보조 배달부 황수건과 '나'의 첫 만남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아홉 시가 지나서야,

다른 집에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늦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음.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소?” / 물으니,

“자연 그럽쇼.” /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 다음 날에도 늦게 배달 온 황수건

라 『자기는 위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황수건의 내력에 대한 요약적 제시(말하기 방식)』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정식 배달 직원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이란 것, 저희 아

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 데다가 목숨 수 자하

고 세울 건 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 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

### 학습 point

- 1 다양한 서술 방식과 효과
- 2 작품의 세부 내용
- 3 인물의 성격 이해

읽기 중 활동 | 황수건이 신문 보는 집에 개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 신문을 돌리다가 개가 덤벼서 물릴 뻔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 황수건의 엉뚱한 면모

‘개’와 관련된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신문 보는 집에는 개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어떤 일이든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의 기준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황수건의 면모가 드러남.

#### (다)의 서술 방식과 효과

대화 위주의 간접 제시

↓

-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음.
- 독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

#### 교과서 어휘

부르대다 남을 나무라거나 하는 뜻이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들어 대다.



에서는 가가호호에서 노랑 수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집집마다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 (라)의 서술 방식과 효과

황수건의 내력을 직접 제시

⋮

- 요약적 제시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음.
- 독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

→ 황수건의 내력

교과서 내용 확인

○ (다)와 (라)에 제시된 황수건에 대한 정보

성격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함.
외모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람.
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산학교에서 일을 했음.</li> <li>• 신문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임.</li> <li>• 양친, 형님 내외, 조카, 황수건 부부까지 식구가 일곱임.</li> <li>• 성은 '황', 이름은 목숨 '수'와 세울 '건' 자를 씀.</li> <li>• 아이들이 '노랑 수건'이라고 놀림.</li> </ul>

○ (다)와 (라)의 인물 제시 방법

	(다)	(라)
방법	간접 제시(보여 주기 방식)	직접 제시(말하기)
특징	인물의 외양, 행동, 대화 등을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나 성격 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을 요약하거나 설명하는 방식
효과	'나'와 황수건의 대화를 통해 황수건이 사교적이고 순박하지만 우둔하고 모자란 인물을 독자가 직접 판단하게 함.	황수건의 내력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독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전개함.

○ 서술자 '나'의 역할

**서술자**

- 작가가 만들어 낸 허구적 대리인으로, 서사 내용과 독자 사이에 개입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 작가의 태도나 사상을 반영할 뿐이며 실제의 작가와 같은 인물은 아님.
- 이 작품의 서술자는 작품 속의 인물인 '나'이며 등장인물인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를 서술함으로써 그의 성격을 제시함.

확인 문제

point ①

04 (다)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는 간접 제시의 방법인 보여 주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② (다)의 서술 방식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장점이 있다.
- ③ (라)는 직접 제시의 방법인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④ (라)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사건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 ⑤ (다)와 (라) 모두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point ②

05 (다), (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황수건은 자신의 가족을 자랑스러워한다.
- ②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개를 키웠었다.
- ③ 황수건은 손과 팔목이 머리에 비해 작고 가는 편이다.
- ④ 황수건은 '나'의 집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시간에 배달하러 왔다.
- ⑤ '나'는 황수건이 살아온 내력을 듣고 난 후 황수건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point ③

06 ㉠에서 알 수 있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의
- ② 동정
- ③ 연민
- ④ 애상
- ⑤ 증오

**감상하고 활동하기**

**마** 우리 집에서는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 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황수건에 대한 '나'의 가족들의 반응  
 지껄이기가 좋았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 반응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  
 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  
근심 따위가 가셔서 개운해지는  
 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 주었다.

'나는 황수건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어줌.' → 황수건과의 대화를 좋아하는 '나'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오뉴월인데  
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등, ㉠ 아무튼 그  
꿩고기는 겨울에 주로 먹음.  
가 애깃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  
 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나?'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  
 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황수건의 소박한 소원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이십 부 떼어 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  
황수건의 고단한 삶의 현실  
배달에게서 한 삼 원 받는 터라, 월급을 이십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나니  
 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  
 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뚱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딴은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난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 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 황수건의 소박한 평생 소원

**바** 그러나 신문 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마  
 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어 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께쇼?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원배달부가 될 기대에 부풀어 있는 황수건

**학습 point**

- 1 작품의 서술 방식
- 2 작품의 흐름과 내용
- 3 인물의 성격

» **읽기 중 활동** | '나는 황수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시 답** '나는 황수건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 이상으로 황수건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며 그를 친구처럼 생각한다.

» 황수건에 대한 '나'의 가족들의 태도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 가지고 그러느냐'  
 ↓  
 '나'가 황수건과 오래 대화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김.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  
 황수건이 잘되기를 바람.  
 → 황수건에 대한 애정

**교과서 어휘**

**반편(半偏)** 반편이.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경난(經難)** 어려운 일을 겪음. 또는 그 어려움.

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 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황수건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황수건에 대한 애정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줄력 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 평생 소원인 원배달부가 될 기대를 하고 있는 황수건

전개 '나는 황수건과 자주 대화를 하며 신문 원배달부가 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임을 알게 됨.'

교과서 어휘

줄력거리다 줄렁거리다. 매우 가볍고 경망스럽게 자꾸 행동하다.

교과서 내용 확인

○ 황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

- '나는 그와 지껄이기가 좋았다.'
-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



황수건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호의적 태도를 보임.

○ (마)에서 드러나는 황수건의 성격

기상천외로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 거리를 찾아냄.



영뚱한 면모를 지닌 인물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되고 싶어 함.



소박하고 욕심이 없는 인물

○ (나)~(바)의 구성 단계

전개

사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단계



- '나'가 황수건의 말을 받아 주는 모습을 통해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 태도가 드러남.
- 황수건의 대화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을 통해 영뚱한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암시함.
- 황수건의 소망을 제시함으로써 소박하고 욕심 없는 인물임을 알려 줌.

확인 문제

point ①

0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비현실적인 인물을 내세워 부조리한 사회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내적 갈등을 세밀하게 서술함으로써 사건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사회 현실에 좌절하는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point ②

08 이 글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 때 들어갈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수건이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을 부러워하는 장면
- ② 황수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열심히 이야기하는 장면
- ③ '나'가 황수건과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난 뒤 웃음 짓는 장면
- ④ 가족들이 '나'가 황수건과 대화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면
- ⑤ 황수건이 신문사 사장이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좋아하는 장면

point ③

09 ㉠에서 알 수 있는 황수건의 성격을 쓰시오.

위기

❶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 ‘어디 보자!’  
황수건이 온 것이라 생각한 ‘나’의 반가움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배달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뀜.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오?” / 물으니 그는,  
황수건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맡았나 봅시다.” / 한다.  
황수건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남. 황수건이 원배달부가 되지 못한 이유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요.” /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황수건이 ‘나’의 집에 뜰하게 올 것임을 암시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차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 황수건이 원배달이 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

❷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 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 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다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황수건의 성이 ‘누를 황(黃)’이라는 것을 고려한 별명  
황수건의 천진하고 모자란 인물됨 때문에 벌어진 일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나는 수단  
앞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다. 일본말을 못 하니가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학습 point

- ① 사건의 전말
- ② 인물에 대한 인식
- ③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는 서술상의 특징

❸ 읽기 중 활동 | 이튿날 황수건이 ‘나’의 집에 오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 황수건이 소망하던 원배달부 자리는커녕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마저 쫓겨났기 때문이다.

❹ 황수건에 대한 ‘나’의 심정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과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남.

❺ 읽기 중 활동 | 황수건이 동네에서 유명한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 우스운 일화를 여럿 남길 정도로 모자란 인물이기 때문이다.

❻ 교과서 어휘

**당자(當者)** 당사자.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급사(給仕)**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리는 사람.

**시학관(視學官)** 일제 강점기에, 학무국에 속하여 관내(管内)의 학사 시찰을 맡아보던 고등관.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쓰카……. 히히 아메가 후리마쓰 유키가 후리마쓰카 히히…….”

일본말을 모르면서 말을 붙이려는 황수건의 엉뚱한 성격이 드러남.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 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쓰카…….’ 하는 판이었다.

황수건이 일본말을 연습하느라 종 치는 것을 잊어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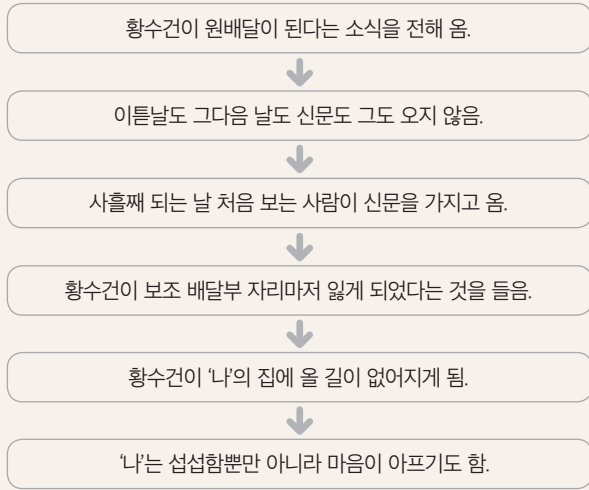
→ 황수건에 얽힌 우스운 일화

**교과서 여쭙**

센세이~후리마쓰카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라는 뜻.

**교과서 내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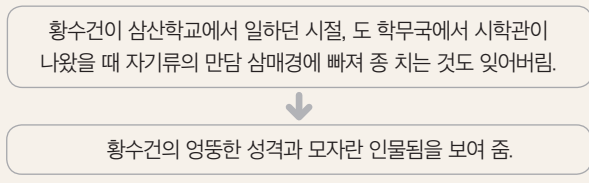
○ ‘원배달’ 사건의 전말



○ 황수건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

-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말깁니까? 배달부로 썰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니다.”
- 황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 (아)에 제시된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



**확인 문제**

**point ①**

**10** (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황수건이 이틀 동안 오지 않아도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 ② 사흘째 되는 날 나타난 신문 배달부는 보조 배달이 아니라 원배달이다.
- ③ 황수건은 자신이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자 부끄러워서 모습을 감추었다.
- ④ 황수건이 원배달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똑똑하지 못해서이다.
- ⑤ 황수건의 상황을 알게 된 ‘나’는 그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

**point ②**

**11** 황수건이 원배달이 되지 못한 이유이자 황수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말을 찾아 쓰시오.

**point ③**

**12** 작품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때, (아)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
- ②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설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공간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
- ④ 서술자가 관찰한 내용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⑤ 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상세하게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자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 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번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너희 색시 달아난다.”

황수건을 놀리려는 농담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 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농담을 진담으로 믿는 황수건의 어리숙하고 순박한 면모가 드러남.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 황수건과 관련된 또 다른 우스운 일화

차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께쇼?” /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옵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황수건의 엉뚱한 모습을 희화화함.

“잘 오우. 왜 그러우?” / 한즉 또,

“늦지도 않굽쇼, 일즉이 제때마다 꼬옥 옵쇼?” / 한다.

신문사에 고자질을 하려고 반복하여 질문함.

“당신이 돌릴 때보다 세 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우.”

하니 그는 머리를 벽적벽적 긁으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라서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신문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과 새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이 드러남.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뎡쇼, 선생님?” / “왜 그러우?”

“삼산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계 생겼습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황수건의 행동을 희화화함.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굽쇼, 운동을 합쇼.” / 한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기대를 하고 있는 황수건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쇼.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뎡쇼. 아, 그랬더니 새 급

학습 point

- ① 작품의 갈래상 특징
- ② 작품의 세부 내용
- ③ 소재의 역할

» 서술자의 서술 태도

‘반가웠다.’  
 ↓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 황수건의 새로운 소원

삼산학교 복직  
 ↓  
 새 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복직을 견제하고 있어 한번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 교과서 어휘

**하학(下學)** 학교에서 그날의 수업 을 마침.

**다그다** ① 시간이나 날짜를 예정 보다 앞당기다. ② 어떤 일을 서두 르다.

**근력(筋力)** 근육의 힘. 또는 그 힘 의 지속성.

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덱쇼, 이 녀석이 막 불근덱니다그려. 그래 한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황수건  
 씬을 해야 할 턱덱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덱벼들 턱덱쇼,  
 허…….”

“그렇지, 멧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황수건의 말에 동조하며 추임새를 넣음. 황수건에 대한 '나'의 수용적, 호의적 태도가 드러남.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 신문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황수건

**교과서 어휘**

**불근대다** 흥분하여 자꾸 성을 율  
 킅 내다.

**교과서 내용 확인**

● (자)에서 드러나는 황수건의 성격

어느 선생이 황수건에게 아내가 달아날 것이라는 농담을 함.



- 황수건이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짐.
- 일찍 귀가하려고 학교 종을 빨리 침.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

● (차)에서 드러나는 황수건의 성격

쫓겨난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가려고 운동을 한다고 함.



- 날마다 사무실로 가서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댐.
- 새 급사의 근력을 알아야 덱벼들 것이라고 생각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엉뚱한 성격

●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들의 역할

일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수건의 아내가 달아날 것이라는 농담과 관련된 일화</li> <li>•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화</li> </ul>	다소 모자라지만 순수하고 천진한 황수건의 인물됨을 부각함.

**확인 문제**

**point ①**

**13** 이 글의 갈래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수건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황수건이라는 인물의 정서를 서술하고 있다.
- ③ 황수건이라는 허구의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나'라는 서술자가 전개하고 있다.
- ④ 독자를 계도할 목적으로 '나'와 황수건이라는 인물에 얽힌 실제 경험을 열거하고 있다.
- ⑤ 실존 인물인 황수건과의 만남에 대해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point ②**

**14** (자), (차)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황수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편이다.
- ② 황수건은 아내가 도망을 갈까 봐 염려하고 있다.
- ③ 황수건은 자신의 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하는 인물이다.
- ④ 황수건은 졸라 대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황수건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있다.

**point ③**

**15**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 ② 앞으로 닥칠 사건을 비유적으로 암시한다.
- ③ 사건 전개에 있어서 극적 반전을 유도한다.
- ④ 인물의 엉뚱한 성격을 부각하는 소재가 된다.
- ⑤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감상하고 활동하기**

**카** “그래섭쇼, 엇저녁엔 큰 돌맹이 하나를 굴러다 삼산학교 대문애다 났습쇼. 그리  
새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행동—새 급사를 경쟁자로 여기는 황수건의 어리숙한 모습  
 구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덱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러다 버렸는  
 지, 뻥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뺑을 탁 치더니,  
방문 의도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행동  
 “그런덱쇼, 제가 온 건입쇼, दै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 / 한다.

황수건이 '나'의 집을 방문한 목적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 한죽,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덱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  
 어지는 법인덱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 한다.』  
『: 대전제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론에 도출함.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디까?” /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내가 생각해 났습쇼.” / 한다.

근거 없는 말임이 드러남. 우두 접종을 하면 며칠 간 약하게 천연두를 앓게 되어 기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두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왜 그렇쇼?” /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덱쇼. 아 삼산학교 그 녀석두 우  
 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덱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 동문서답하며 황실수설하는 황수건의 모습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쇼.”

황수건의 말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의 생각을 존중해 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 **황수건과 실속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나'**

**타**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쇼?”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  
 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턱덱쇼.” /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  
황수건의 허풍스러운 성격이 드러남.  
 다 낫게 치는덱쇼.” /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남.  
 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학습 point**

- 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 ② 내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
- ③ 내용 전개상의 특징

» **읽기 중 활동 | 황수건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 우두 접종이 해롭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나'에게 알려 주기 위해 찾아왔다.

» **'나'와 대화하는 황수건의 태도**

'나'가 묻는 말에 대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대답함.  
 ↓  
 동문서답(東門西答)

» **황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

황수건에게 참외 장사 밀천으로 '돈 삼 원'을 줌.  
 ↓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남. '나'는 황수건의 정직하고 따스한 인간성을 긍정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교과서 어휘**

- 우두(牛痘)**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
- 마마(媽媽)**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고쓰카이** '소사(小使)'의 일본어. 관청이나 회사, 학교,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고용한 사람.
- 차미** 참외의 방언.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황수건의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이 드러남.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 황수건에게 참외 장사 밀천을 대 주는 '나'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위기** 신문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빼앗긴 황수건에게 '나'는 참외 장사 밀천을 대 줌.

**교과서 내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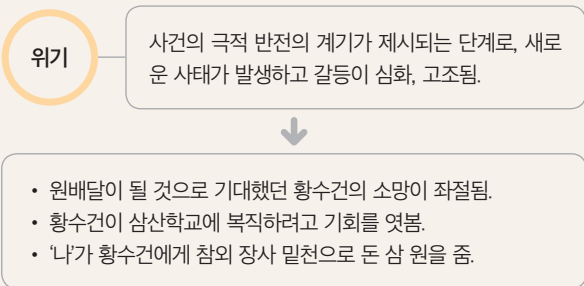
○ (카), (타)에서 드러나는 황수건의 성격

돌멩이를 삼산학교 앞에 가져다 놓고 새 급사의 근력을 확인해 보려고 함.	→	기발한 방법으로 새 급사를 시험해 보려는 엉뚱한 성격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함.	→	대전제의 오류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어리숙한 성격
장사를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함.	→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허풍스러운 성격

○ 소재의 의미

큰 돌멩이	사건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황수건의 어리석은 면모를 부각하는 소재
돈 삼 원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나는 소재
참외 세 개	황수건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소재

○ (사)~(타)의 구성 단계



**확인 문제**

**point ①**

**16**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황수건의 삶에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한다.
- ② 우호적 태도와 적대적 태도를 번갈아 취하고 있다.
- ③ 냉정한 듯하지만 내면에는 연민의 정을 품고 있다.
- ④ 겉으로는 중립적인 듯하나 속으로는 비판적이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황수건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point ②**

**17** 이 글의 내용을 한자 성어로 나타낼 때, 적절한 것은?

- ① 황수건과 '나'는 오월동주(吳越同舟)하는 관계이군.
- ② 황수건은 자연 속에서 독야청청(獨也青青)하고 있군.
- ③ 황수건은 '나'의 질문에 동문서답(東問西答)하고 있군.
- ④ 황수건은 '나'의 상황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하고 있군.
- ⑤ 황수건은 가림주구(苟斂誅求)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군.

**point ③**

**1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인물에 대해 서술자가 객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⑤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려 내고 있다.

## 📷 감상하고 활동하기

### 절정

❷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황수건의 장사가 잘되지 않았음을 암시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금슬. 부부간의 사랑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  
「」: 사건의 요약적 제시(말하기 방식)  
 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긱거  
「나에게 고마워하는 황수건의 마음을 상징  
 급하게 구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리며, /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황수건의 착한 성품이 드러남.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쎄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  
「」: 황수건이 가지고 온 포도가 흠친 것임을 알 수 있음.  
 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뎃값을 물어 주었다. 포뎃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  
 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나」가 황수건에게 애정과 연민을 느끼는 이유가 간접적으로 드러남.

→ 참외 장사에 실패하고 포도를 훔쳐 '나'에게 가져온 황수건

절정	황수건은 참외 장사 밀천마저 까먹고 포도를 훔쳐 '나'에게 주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끌려 감.
----	--

### 결말

❸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  
감각적인 배경 묘사로 황수건의 비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함.  
 빛이 집을 깎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가 다메이…… 키…… 카…….”  
삶에 지친 듯한 황수건의 심리를 대변하는 노래 가사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  
 “수건인가?”

하고 알은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 **핵 길 아래**  
돈 삼 원을 감지 못한 일, 흠친 포도를 가져온 일  
 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 학습 point

- ① 작품의 세부 내용
- ② 소재의 역할
- ③ 배경의 의미와 기능

❷ 읽기 중 활동 | 황수건이 '나'에게 포도를 준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답** '나'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❷ 황수건에 대한 '나'의 태도

- 황수건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줌.
- 황수건이 원배달이 되지 못하자 안타까워하고 각박한 현실을 원망하기도 함.
- 황수건에게 돈 삼 원을 주어 참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황수건을 보고 그가 무안해 할까 봐 못 본 척해 줌.

↓  
 황수건의 정직하고 따스한 인간성을 긍정하고 수용적 태도를 취함.

❷ 읽기 중 활동 | 황수건을 본 '나'가 몸을 감춘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답** 황수건이 '나'를 보면 무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몸을 감추었다.

### 📖 교과서 어휘

-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직각(直覺)** 보거나 듣는 즉시 곧바로 깨달음.
- 깁**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 사케와 ~다메이키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의 뜻으로,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황수건의 답답한 삶을 상징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달을 바라보며 우수에 잠기는 황수건을 목격하는 '나'

**결말** 담배를 피우며 달밤에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보며 '나'는 연민을 느낌.

교과서 내용 확인

소재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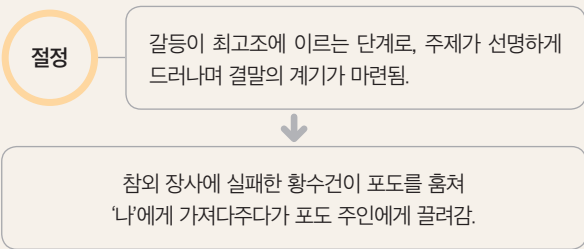
포도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담배	황수건의 답답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
일본 노래	삶에 지친 황수건의 심리를 대변하는 소재

'달밤'의 의미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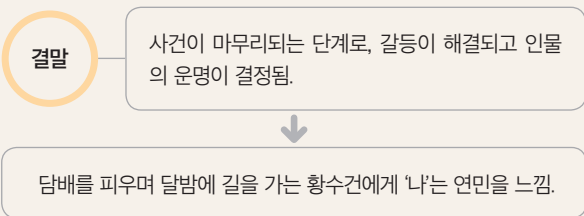
달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정적,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함.</li> <li>밝은 달밤 아래 방황하는 황수건의 모습은 회화적이면서도 애처롭게 느껴짐.</li> <li>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의 정서를 부각함.</li> <li>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그의 천진한 성격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배경임.</li> </ul>
----	---

↓  
황수건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두운 밤과 같이 험악지만 환한 달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 결말이 비극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 주고 있음.

(파)의 구성 단계



(하)의 구성 단계



확인 문제

point ①

19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황수건은 다른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인물이다.
- ② 황수건은 답답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황수건은 노래를 다 외울 만큼 영민하지 않다.
- ④ 황수건의 아내는 남편이 남들보다 모자란 인물임을 알고 있다.
- ⑤ 황수건은 자신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point ②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나'는 황수건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 ② ㉠에는 '나'에 대한 황수건의 순정이 담겨 있다.
- ③ ㉡은 황수건의 고달픈 심정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 ④ ㉠과 달리 ㉡은 개인을 억압하는 신분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⑤ ㉠과 ㉡을 통해 독자들은 황수건의 답답한 처지에 연민을 느끼게 된다.

point ③

21 '나'가 ㉢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 ① 황수건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 ② 황수건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 ③ 황수건이 자신을 두려워할까 염려하여
- ④ 황수건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
- ⑤ 황수건과 불미스러운 일로 얽힌 죄책감 때문에

point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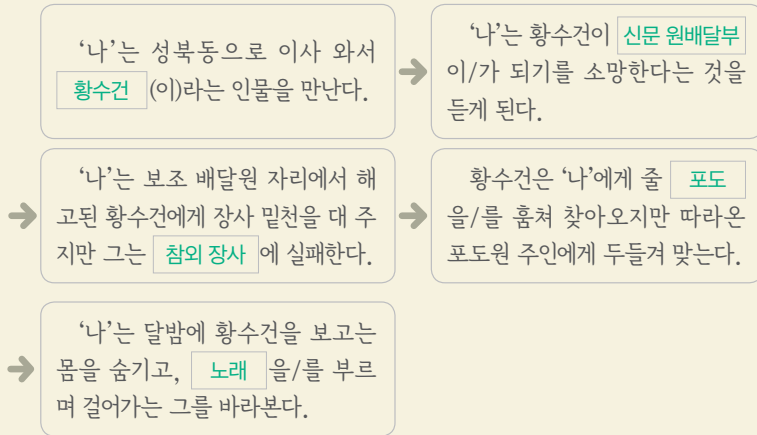
22 ㉢의 의미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준다.
- ② 인물의 불우한 처지와 대비된다.
- ③ 서술자와 인물의 과거를 환기한다.
- ④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학습 활동**

내가 읽은 <달밤>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1** 주인공의 특징 알아보기

1 <달밤> 속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자.



-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함.
-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김.
- 새로 온 삼산학교 급사의 근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대문에 큰 돌맹이를 굴러다 놓음.
- 포도를 훔쳐 '나'에게 가져다줌.



- 예시 답**
-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 불임성이 좋다.
  -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한다.
  - 대화의 소재가 풍부하다.
  -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착하고 순박하다.
  - 지능이 낮아서 모자란 말을 자주 한다.
  - 은혜에 대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안다.

**01**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적을 일화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시간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
- ⑤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첨예한 갈등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02** 황수건의 인물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이 많고 사교적이다.
- ② 속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 ③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 ④ 정확하지 않은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 ⑤ 지능이 낮아도 사회적으로 처신을 잘하는 편이다.

**03** 황수건에 대한 평가가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황수건을 못난이라고 여겼다.
- ② '나'의 가족들은 황수건을 반편이라고 생각했다.
- ③ 원배달이 된 사람은 황수건을 반편이라 여기고 있다.
- ④ 황수건은 자신이 원배달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노랑 수건'이라는 말에는 황수건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다.

2 ①에서 살펴본 황수건을 성복동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찾아보자.

**예시 답** 황수건을 반면, 모자란 사람, 놀림의 대상, 웃음거리로 생각한다.

## 2 서술자의 특징과 작품의 주제 탐구하기

①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서술자를 이해해 보자.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을 ‘서술자’라고 한다. 서술자는 작품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야기 속 서술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느냐,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달리 전달될 수 있다.

(1) 이 작품의 서술자는 누구이며,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예시 답** ‘나’, 이야기 속에서 주변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삶을 관찰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2) (1)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같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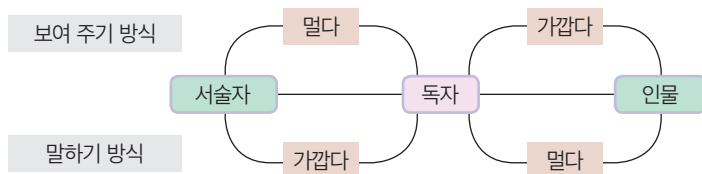
**예시 답** 서술자 ‘나’가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주인공 황수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가 황수건의 불행에 몰입되는 것을 막아 주며 황수건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고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교과서 날개 보기 | 시점(視點) |

서사 갈래, 특히 소설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말한다.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점이 달라지는데, 시점에 따라 서술 효과가 달라진다.

### 참고 자료 소설의 시점과 거리

‘거리’는 인물과 서술자, 독자 사이에 형성되는 심리적 친밀감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시점과 서술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 활동 응용 문제

04 소설의 인물 유형을 <보기>와 같이 나눌 때, 황수건은 어떤 유형에 해당 하는지 쓰시오.

#### • 보기 •

소설의 인물 유형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인물과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

05 이 작품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자신이 관찰한 것과 판단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객관적 관찰에 입각하여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다.
- ④ 독자에게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 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정보는 전해 들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06 이 작품이 ‘말하기’와 ‘보여 주기’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얻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진다.
- ② 객관적 거리에서 인물의 행위를 전달할 수 있다.
- ③ 내용에 따라 사건의 전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 ④ 주관적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⑤ 인물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다.

2 작품 속에 드러난 서술자의 태도를 알아보자.

(1) 다음 장면에서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정리해 보자.

황수건이 원배달원이 되지 못했을 때	황수건이 훔쳐 온 포도를 받았을 때
<b>예시 답</b> 가까운 친구가 큰 사업에서 실패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세상의 아박함을 원망스러워한다.	<b>예시 답</b> 훔쳐 온 포도를 ‘은근한 순정의 열매’로 생각하고 오래 바라보며 맛을 음미하면서 아껴 먹는다.

(2) (1)을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 사회에서 경쟁력이 모자라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을 공감과 연민, 동정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함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3 배경의 역할 이해하기

1 작품의 배경을 설명한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작가가 이 소설을 쓴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로, 당시 조선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일본인이 받는 임금과 조선인이 받는 임금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실업자와 결인, 궁민의 숫자는 빠르게 늘어갔다. 당시에는 사대문 안쪽만을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소설의 배경인 ‘성북동’처럼 사대문 밖의 공간은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로, 가난한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었다.

궁민(窮民) 생활이 어렵고 궁한 백성.

(1)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성북동’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예시 답** 사대문 안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당시에 시골로 여겨지던 지역이다. 1930년대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식민지 근대의 그들과 변두리 인생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2) 황수건이 겪은 갈등을 1930년대라는 시간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예시 답**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황수건처럼 모자라고 어수룩한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받기 쉬웠을 것이다. 이 때문에 황수건은 내적 갈등과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활동 응용 문제

07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고려할 때, ‘나’의 인물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는 사람
- ②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사람
- ③ 상황을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 ④ 정이 많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람
- ⑤ 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를 꾀하는 사람

08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성북동’을 시골로 서술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춘 남녀의 사랑을 중심 소재로 삼을 수 있다.
- ② 산업화의 폐해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혁신적인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제시할 수 있다.
- ④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을 작품의 주제로 제시할 수 있다.
- ⑤ 변두리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

09 ㉠을 참고할 때, 황수건이 당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와 가장 관련 깊은 속담은?

- ① 그물에 든 고기 신세
- ② 쌀독에서 인심 난다.
- ③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2 다음은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에 담긴 뜻과, 이러한 결말이 주는 효과를 생각해 보자.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 밝은 달빛이 길을 칸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 “사…… 케…… 와 나…… 미다가 다메이……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알은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예시 답** 달밤이라는 배경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비극적 이야기를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소설이 지나치게 애상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을 막아 주면서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준다. 또한 황수건을 향한 서술자의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어 서정적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 4 서사 갈래의 특징과 문학의 본질 탐구하기

- 1 고전 소설 <흥계월전>을 읽고, 이 작품과 <달밤>이 같은 갈래로 묶이는 까닭을 생각하며 서사 갈래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계월을 낳아,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 장사랑의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강물에 버려진다. 여공이 계월을 구해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아들 보국과 함께 곽 도사에게 수학하게 한다. 남장을 한 계월은 이름을 평국이라 고친 뒤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 그 과정에서 평국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게 된다. 병이 든 평국은 어의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 여자임이 밝혀진다.

어의가 엿드려 아뢰었다.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이상한 일이옵니다.”

천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평국(계월)은 남장을 한 여자임.

-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극적 결말이지만 서정성이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② ㉡: 황수건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암시한다.
- ③ ㉢: ‘나’가 황수건을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황수건이 우둔한 인물임을 알게 한다.
- ⑤ ㉤: 황수건의 현실 극복 의지를 암시한다.

- 11 ㉤의 서술 효과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 보기 •

㉤와 같이 표현하여 황수건을 향한 서술자의 ( )의 감정을 드러내어 서정적 분위기를 더해 준다.

- 12 <흥계월전>이 <달밤>과 동일한 문학 갈래로 묶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형식의 자유로운 글
- ②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
- ③ 행동과 대사 위주의 글
- ④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글
- ⑤ 개연성 있는 허구로 이루어진 글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십만 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하므로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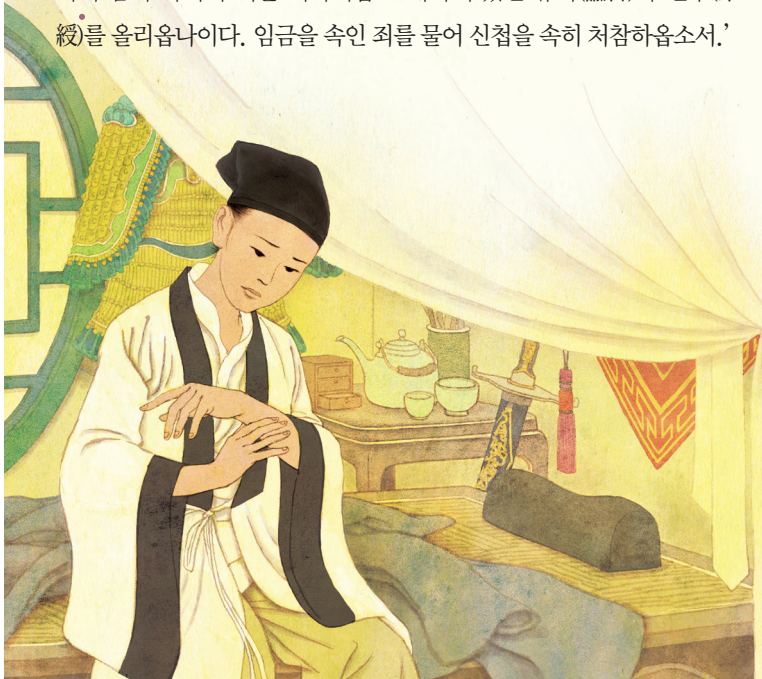
그러시고는 내시를 시켜 자주 문병하도록 하셨다.

이때 평국은 병세가 차차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어의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탄로 날 것이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으로 바꿔 입고 규중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고, 즉시 남자 옷을 벗고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부모를 뵈었다. 그리고 흐느끼니 두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이에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계월이 슬픔에 잠겨 우는 모습은 추구월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구름에 잠긴 듯했으며 아름다우며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

계월이 천자에게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을 만나 물속의 외로운 냇이 될 뻔한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옵나이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늙어 부모의 해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이우고 조정에 들었사오니 신첩의 죄는 만 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옵고 내려 주셨던 유지(諭旨)와 인수(印綬)를 올리옵나이다.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첩을 속히 처참하옵소서.’



13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천자는 계월의 본색을 미리 알고 있었다.
- ② 계월은 어의가 맥을 통해 자신의 본색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③ 계월의 부모는 계월이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계월은 슬픔에 잠겨 울면서도 침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⑤ 계월은 천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며 잘못을 고하고 있다.

14 이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만을 서술한다.
- ② 작품 속의 서술자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서술한다.
-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자신이 관찰한 내용만을 서술한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입장에서 모든 사실을 서술한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서술한다.

15 천자와 계월이 갈등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월이 신하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 ② 계월이 부모의 명을 거부하지 못한 것
- ③ 계월이 천자의 명에 복종하지 않은 것
- ④ 계월이 여성임을 숨기고 관직에 오른 것
- ⑤ 계월이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전장에서 패배한 것



천자께서 글을 보시고 용상(龍床)을 치며 말씀하셨다.

계월의 가치를 알아보는 형명함을 지님.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오? 고금에 없는 일이다.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무(文武)를 다 갖추어 갈충보국(竭忠報國)하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다.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당시의 봉건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림.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 작자 미상, <홍계월전>

**규중(閨中)**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추구월(秋九月)** 음력 9월의 가을철을 이르는 말.

**황상(皇上)** 현재 살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皇帝)를 이르는 말.

**유지(諭旨)**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글.

**인수(印綬)** 벼슬에 임명될 때 임금에게 받는 도장을 몸에 차기 위한 끈.

**용상(龍床)**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던 평상.

**갈충보국(竭忠報國)** 진충보국.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를 갚음.

**예시 답** •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존재한다.

-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다.
-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진다.

- 2 ①에서 정리한 내용과 소단원 (1)에서 배운 ‘문학의 본질’을 생각하며 <달밤>과 <홍계월전>의 구성 요소들이 작품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 <달밤>은 소외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을, <홍계월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아를 성취한 여성의 일생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있는 내용을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설정 등 서사 갈래 고유의 방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달밤>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활용하여 독자들은 소외되고 모자란 인물의 삶에 연민을 느끼게 된다.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홍계월전>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대 여성들을 대리 만족시키고,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이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홍계월전\_ 작자 미상

- 갈래: 고전 소설, 국문 소설, 여성 영웅 소설, 군담 소설
- 성격: 전기적, 영웅적, 일대기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중국 명나라 때 형주, 벽파도, 황성
- 제재: 계월의 수난과 극복
- 주제: 여성 영웅의 수난과 극복,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 특징
  - ① 일대기적 구성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함.
  - ②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음.
  - ③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영웅으로 설정함.

16 <홍계월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나라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계월이나 천자와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 외에 별도의 서술자를 내세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여성 영웅이 겪는 사건을 설정하여 인물들의 대응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평국과 천자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사건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17 다음은 <달밤>을 창작할 때의 메모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 ‘나’가 관찰하고 느끼고 들은 바를 서술해야겠어.
- ② 다소 모자란 인물인 ‘황수건’을 주인공으로 설정해야겠어.
- ③ 공간적 배경은 번두리로 설정해야 주제에 부합할 것 같아.
- ④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루므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겠어.
- ⑤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여 줘야겠어.

18 <달밤>과 <홍계월전>의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황수건’은 반편이라고 불리고, ‘홍계월’은 자신이 여성임을 속인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보아 두 작품의 인물들은 사회로부터 ( ) 된 부류에 속하는 공통점이 있다.

## 소단원 정리하기

### ● 서사 갈래

개념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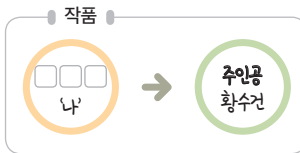
하위 갈래

설화,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

### ● 소설의 특징

- 인물, □□, 배경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서술자는 작품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존재이다.
- 서술자의 □□와 □□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진다.

### ● <달밤>에서 서술자의 역할



이 작품의 서술자 '나'는 작품의 안에 있고, 주인공 황수건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 어휘 점검하기

### ● 다음은 소설 <달밤>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외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이다. 단어의 뜻을 찾아 빠르게 연결해 보자.

뚱그레지다 ① .

㉑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자연 그대로 깨끗하고 순진한 데가 있다.

부르대다 ② .

㉒ 둥그렇게 되다.

천진스럽다 ③ .

㉓ 남을 나무라거나 하는 듯이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들어 대다.

휘적거리다 ④ .

㉔ 걸을 때에 두 팔을 자꾸 몹시 휘젓다.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달밤 · 이태준

### ●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애상적
배경	1930년대 서울 □□□		
제재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의 삶		
시점	1인칭 □□□ 시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다양한 일화를 나열함.</li> <li>'□□'이라는 배경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냄.</li> <li>세밀한 묘사를 통해 사건과 인물을 선명하게 드러냄.</li> </ul>		
주제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 ● 작품의 구성

발단	성북동으로 이사 온 '나'는 우둔하지만 친진한 □□□을 만남.
전개	'나'는 황수건과 자주 대화를 하며 신문 원배달이 되는 것이 황수건의 평생 소원임을 알게 됨.
위기	신문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빼앗긴 황수건에게 '나'는 참외 장사 밀천을 대 줌.
절정	황수건은 참외 장사 밀천마저 까먹고 포도를 훔쳐 '나'에게 주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끌려감.
결말	담배를 피우며 달밤에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보며 '나'는 □□□을 느낌.

### ● 등장인물의 성격

**황수건**

- 단순하고 우둔하지만 따뜻한 인물
- □□□, 못난이 취급을 받지만 세태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인물

**'나'**

- 황수건의 정직하고 따스한 인간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호의적 태도를 취하는 인물

### ● 제목 '달밤'의 의미와 기능

- 서정적,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함.
-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의 정서를 돋보이게 함.
- 밝은 달빛 아래 방황하는 황수건의 모습은 희화적이면서도 애처롭게 느껴짐.
-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시대의 정황과 그의 친진한 성격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 배경임.

↓

황수건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두운 밤과 같이 힘겹지만 환한 달빛을 통해 □□□ 결말을 막아 주고 있음.

▶ [해설](#) ▶ [답안](#) ▶ [질문](#) ▶ [정답](#) ▶ [해설](#) ▶ [답안](#) ▶ [질문](#) ▶ [정답](#)



# 소단원 평가 문제

[01 ~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 하였다.

뒤 바깥이 킁킁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짹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 “그렇소. 신문이오?”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뎡쇼, 왜 이렇게 짝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  
“뿔입쇼, 이게 제 업인뎡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각듯이 내 성명을 댔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 “댁엔 개가 없구먼입쇼?” / 한다.  
“아직 없소.” / 하니, /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 한다.  
“왜 그렇소?” /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뎡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  
“왜?” / “막 깨물라고 덤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뎅을 맥어 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 “어서 곤할 텐데 가 자시오.” /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뎡쇼.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걸입쇼.” / 하더니 돌아갔다.

**수능형**

**01** <보기>는 이 글을 감상하기 위한 학습 계획이다. '활동 2'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활동 목표: 인물, 사건, 배경을 분석하여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 활동 1: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해 보자.
- 활동 2: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활동 1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① 공간적 배경을 '성북동'으로 설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 ② '나'가 황수건에게 취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주제를 파악해 보자.
- ③ 황수건이 신문 보조 배달을 하는 인물로 설정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
- ④ '개'를 집에 두지 말라고 하는 황수건의 말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 보자.
- ⑤ '신문'을 읽는 지식인인 '나'와 못난이인 황수건 사이의 계층 간 갈등 양상을 분석해 보자.

**02**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대기적 구성 방식으로 특정 인물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
- ②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해 관찰한 내용과 느낀 바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을 전지적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며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황수건에 대한 ‘나’의 첫인상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 황수건의 행동을 통해 그의 모자란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황수건의 행동을 희화화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우스꽝스러운 외모 묘사를 통해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⑤ ㉤: 황수건의 말을 통해 황수건이 순박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04~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수건은 원배달부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똑똑치 못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보조 배달원 자리마저 잃게 된다.

“늦지도 않습쇼, 일찍이 제때마다 꼬옥 읍쇼?” / 한다.  
 “당신이 돌릴 때보다 세 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우.” / 하니 그는 머리를 벽적벽적 긁으면서,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낸다.

“그런덱쇼, 선생님?”  
 “왜 그러우?”  
 “삼산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계 생겼습쇼?”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쇼.”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갑쇼, 운동을 합쇼.” /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쇼. 다시 써 달라고 졸라덱쇼.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덱쇼, 이 녀석이 막 불근덱니다그려. 그래 한번 씹을 해야 할 턱덱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덱벼 들 턱덱쇼, 허…….”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덱쇼, ㉡ 엇저녀엔 큰 돌맹이 하나를 굴러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났습쇼.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덱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러다 버렸는지, 뺨 짝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뺨을 탁 치더니,  
 “그런덱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  
 한다. /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덱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덱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내가 생각해 냈습쇼.” / 한다.  
 “왜 그렇쇼?” /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덱쇼. 아 삼산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덱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쇼.” /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04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황수건은 ‘나’의 칭찬에 기뻐하는 순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 ② 황수건은 자기 대신 원배달이 된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
- ③ 황수건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다.
- ④ ‘나’는 어리숙한 황수건을 염려하면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 ⑤ ‘나’는 황수건의 엉뚱한 말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5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 ㉡과 같은 말을 하는 황수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은?

• 보기 •  
황수건은 지능이 낮고 모자란 인물이라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인물이다.

- ① 티끌 모아 태산
- ② 가는 날이 장날이다.
- ③ 빈 수레가 요란하다.
- ④ 산 입에 거미줄 치라.
- 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06~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턱덱쇼.”  
한다. /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님들보다 낮게 치는덱쇼.” /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은 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 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돛값을 물어 주었다. 포돛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 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의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알은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06**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포도값을 물어 주는 것에서 포도를 훔쳐 온 황수건에게 연민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가 달밤에 황수건을 피하는 것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포도를 훔쳐서 ‘나’에게 가지고 온 황수건의 모습에서 그가 은혜를 갚으려 하는 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질린 얼굴로 포도원 사람에게 잡혀 가는 황수건의 모습에서 그가 힘 센 자를 두려워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⑤ ‘나’가 황수건이 준 포도를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중요

**0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황수건의 말을 통해 그의 허풍스러운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황수건의 행동을 통해 그의 단순하고 순박한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 ③ ㉢: 특정 소재를 이용하여 황수건이 ‘나’에게 자신의 고마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나’의 행동을 통해 황수건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를 암시하고 있다.

서술형

**08** <보기>를 참고하여 ㉠을 부르는 황수건의 심리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6점]

• 보기 •

㉠은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의 뜻으로,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이다.

• 조건 •

황수건의 처지와 노래의 내용을 관련지어 황수건의 심리를 서술할 것.

[0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의가 었드려 아뢰었다.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이상한 일이 옵니다.” / 천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십만 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하므로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 그러시고는 내시를 시켜 자주 문병하도록 하셨다.

이때 평국은 병세가 차차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어의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탄로 날 것이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으로 바꿔 입고 규중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고, 즉시 남자 옷을 벗고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부모를 뵈었다. 그리고 흐느끼니 두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 이에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세월이 슬픔에 잠겨 우는 모습은 추구월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구름에 잠긴 듯했으며 아름다우며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 / 세월이 천자께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을 만나 몰속의 외로운 냇이 될 뻔한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옵나이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늙어 부모의 해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이옵고 조정에 들었사오니 신첩의 죄

는 만 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옵고 내려 주셨던 유지(諭旨)와 인수(印綬)를 올리옵나이다.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첩을 속히 처참하옵소서.’

천자께서 글을 보시고 용상(龍床)을 치며 말씀하셨다.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고금에 없는 일이다.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무(文武)를 다 갖추어 갈충보국(竭忠報國)하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로다.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09** 이 글을 <달밤>과 같은 갈래로 묶을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② 주인공과 세계의 갈등을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재현하였다.
- ③ 외부의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의 의미를 사색, 성찰하고 있다.
- ④ 주인공과 세계가 대립하면서 전개되는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다.
- ⑤ 압축된 언어로 여백의 미를 살려 주인공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10**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관찰 내용과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와 사건을 모두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작품 속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이 되어 그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11** 이 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가장 적절한 장면은?

- ① 천자가 사실을 알고 난 뒤 계월에게 직접 죄를 묻는 장면
- ② 천자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계월을 가족들이 말리는 장면
- ③ 신하들이 계월의 복귀를 반대하여 천자를 설득하는 장면
- ④ 계월의 부모가 계월을 대신하여 천자에게 벌을 청하는 장면
- ⑤ 계월이 자신의 성별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비하는 장면

**수능형**

**12** <보기>의 관점에서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남성 중심 사회였던 조선에서 여성들은 삶의 공간이 가정 내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여성 영웅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성 영웅 소설에서 여성 영웅이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남장을 한 채로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것은 완전한 영웅성이나 여성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 소설의 한 계라고 할 수 있다.

- ① 천자가 계월의 상소문을 읽고 용상을 친 것은 자신을 속인 계월의 배포에 탄복해서였군.
- ② 계월이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자신을 처참하라고 청한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군.
- ③ 여자가 전장에서 적병을 소멸하기 어렵다는 천자의 생각은 남성 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계월이 남장을 한 채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것은 완전한 여성성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군.
- ⑤ 여자임을 밝히고 규중에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계월의 생각에서 당시 여성의 제한된 삶을 확인할 수 있군.



소설이란 무엇인가

이태준 단편 소설의  
서정적 특성 연구

작가의 다른 작품  
둘러보기

### 1 소설이란 무엇인가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난 후 우리는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그래서 중심적인 줄거리에 대하여 회상하게 되지만 실상 그 줄거리는 소설 속의 여러 인물들과 공간적·시간적 배경 그리고 그 줄거리를 말하는 서술자의 태도, 작가의 문장 등에 얽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설 속의 이야기가 독자에게 전달될 때에는 작가가 고안한 문학적 장치와 함께 전달되며 때로는 그 장치 자체를 통해 암시된 이야기를 추적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소설이 허구이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지 않고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신동욱, <문학의 아름다움>, 벽호

### 2 이태준 단편 소설의 서정적 특성 연구

이태준은 대표적인 단편 소설 작가로, 장편 소설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질적 수준이나 문학사적 가치로 볼 때 단편 소설이 그의 문학적 본령임은 기왕의 논의들에서 밝혀진 바이다. 그는 작품 창작뿐 아니라 활발한 문단 활동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놓인다. 대표적인 순수 문학 단체인 '구인회' 결성 초기부터 모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정지용과 함께 <문장>을 주관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한 작가들은 직접·간접으로 이태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단편 소설은 1930년대 후반 새로이 등장한 신세대 작가들의 소설에 전범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태준 단편 소설의 특징은 흔히 독특한 인물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태준 소설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이 어떠한지, 그가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그의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은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평면적이다. 인물의 성격이 평면적인 만큼 작품은 독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단일한 인상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태준 소설의 인물들은 평균 이하의 생활을 하거나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중략>

인물과 함께 그의 소설을 개성 있게 만드는 것은 독특한 분위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서술자의 감정이 독자에게 직접 전달됨으로써 생긴다. '이미 운명이 결정된 인물들을 택해 거의 시를 쓰는 기분으로' 썼다는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태준은 현상을 통해 느낀 작가의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그는 사물의 깊은 내용을 뜯어보려는 의도보다는 표면에 드러난 특징을 애잔하게 그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인과성 중심의 플롯에 의해 진행되는 소설보다 인상적인 삽화들의 나열로 이루어진 소설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서사적 태도라기보다는 서정적인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태준 소설은 작가가 현상적으로 지각하는 단일한 인상이나 분위기가 주는 정서적 반응을 주로 전달하는데, 이는 복잡한 서사가 주는 감동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다. 각각의 삽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서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

는 것은 물론 그 이미지의 중첩과 변화가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태준의 경우 ‘달’이나 ‘밤’ 이미지는 그 대표적 예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김한식, <이태준 단편 소설의 서정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회 연구회 어문논집

### 3 작가의 다른 작품 둘러보기

#### 돌다리

- 이태준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늘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나문에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 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났던 생각 안 나니? 시쳇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 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돈으루 작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가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 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현신작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

들루밖엔 보지 않드라.” / “…….”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루? 밭에 가 절하구 논에 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허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섭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한 게 무어나?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엔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한테나, 떡 도회지에 가 있어 소출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니? 독이 떠나가니 아니?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냅나? 성급하게 돼 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藥品肥料(약품 비료))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덜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분위였던 것을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異端的)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 농토를 파는 문제로 의사인 아들과 농부인 아버지가 갈등하는 작품으로 땅에 대한 애착이나 신념이 없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 제재인 ‘돌다리’는 단순히 다리가 아니라 가족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황수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달밤>과 물질주의적 세태를 비판하는 <돌다리>는 각박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전체 줄거리	의사인 창섭이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고향의 땅을 팔아서 마련하려고 하자, 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인 땅이 천지 만물의 근거라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며 땅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주제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 비판

고등학교

# 국어(상) 자습서



정답 및 풀이

# 1 문학의 빛깔

## 01 서정 갈래의 이해

### 확인 문제

015쪽

01 ②      02 ⑤      03 ⑤

01 이 시는 추상적인 관념인 ‘슬픔’과 ‘기쁨’을 ‘나’와 ‘너’로 의인화하여 구체적인 화자와 청자로 제시하고 있다.

02 이 시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라는 문제 상황은 제시하고 있지만, 시적 화자인 ‘나’의 문제 상황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이제 / 너에게도 / 슬픔을 / 주겠다. // 사랑보다 / 소중한 / 슬픔을 / 주겠다.’에서 드러나듯이 4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주겠다, 멈추겠다, 걷겠다, 걸어가겠다’ 등에서 ‘-겠다’를 반복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슬픔’보다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데 비해 이 작품에서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나’가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3 이 시에서 ‘기다림’은 ‘나(기쁨)’가 ‘너(슬픔)’에게 주려는 것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줄 모르는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다림’은 소외된 사람들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겨울밤 거리’는 추위에 떨며 할머니가 굴을 팔고 있는 공간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한다. 할머니가 ‘살아온 추위’ 또한 시련과 고난의 삶을 나타낸다.

② ‘어둠’은 누군가가 고통 속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할머니’는 추위를 견디며 굴을 파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으로, 사회적 소외 계층에 속한 존재들임을 알 수 있다.

④ ‘눈물’은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연민의 눈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는 것은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함을 드러낸다.

### 활동 응용 문제

016-020쪽

01 ⑤      02 ④      03 ①      04 최소한의 관심  
05 ⑤      06 호기심, 역전      07 ②      08 ④  
09 ④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④      15 언어, 형상화      16 ③

01 이 시는 시적 화자인 ‘나’가 시의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이 시는 시적 화자인 ‘나’가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시 속 청자가 ‘나’와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자의 반응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청자인 ‘너(기쁨)’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② 이 시의 화자는 ‘슬픔’으로, ‘나’로 의인화되어 시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이 시의 청자는 ‘기쁨’으로, ‘너’로 의인화되어 있다.

⑤ 이 시의 화자는 ‘-겠다’의 어미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03 이 시에서 ‘할머니’는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와 함께 소외된 사람 혹은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

04 ‘가마니 한 장’은 소외된 존재인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의미한다.

05 이 시에서 화자는 이기적인 삶을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6 이 시의 제목인 ‘슬픔이 기쁨에게’는 미완성의 문장으로 제시하여 슬픔이 기쁨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슬픔’의 긍정적인 가치를 역설하고 세상의 슬픔에 무관심한 ‘기쁨’을 비판함으로써 기존의 인식이 역전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07 이 시에서는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존재,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존재로 설정하고 있다.

08 ‘함박눈’은 약자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주는 존재이고 강자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이다. 이에 비해 ‘봄눈’은 약자를 감싸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청자인 ‘너(기쁨)’의 입장에서 둘 다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함박눈’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존재로, 화자는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라고 하며 ‘함박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봄눈’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인 ‘봄눈’과 달리 ‘함박눈’은 그들에게 추위와 고통을 주는 존재이므로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⑤ ‘함박눈’은 가진 사람들에게는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추위와 고통을 주는 대상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제를 고려한다면 ㉠은 멈춰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09 이 시에서 음보의 반복(4음보), 어미의 반복(‘-겠다’), 음운의 반복(‘ㄴ’ 음운)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동일한 글자 수의 반복은 확인할 수 없다.

10 이 시의 주제가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11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한다. 이 시는 추상적인 개념인 ‘슬픔’과 ‘기쁨’을 시적 화자인 ‘나’와 청자 ‘너’로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시어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수사법은 도치법인데, 이 시에는 문장 순서에 따르지 않고 시어의 순서를 바꾼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에서 화자는 ‘기쁨’과 ‘슬픔’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지는 않았다. 또한 감정 이입이 된 대상물도 제시되지 않았다.

④ 실제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은 반어법이다. 이 시에서는 모순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를 반대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범위를 줄이는 방식은 점강법인데, 이 시에는 점강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는 걸로 보기에 모순된 말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인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유치환, <깃발>)의 경우 아우성이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역설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A는 B이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은유법에 해당한다. (김동명, <내 마음은>)

③ ‘해야 솟아라’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반복법에 해당한다. (박두진, <해>)

④ ‘~같이’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직유법에 해당한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⑤ ‘산’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에 해당한다. (김광섭, <산>)

13 서정 갈래는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문학 양식으로 시적 화자는 존재하지만 서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존재하는 문학 갈래는 서사 갈래이다.

**오답 풀이**

- ② 서정 갈래에서는 시어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의도와 정서에 맞게 시어에 함축적 의미를 담아 사용한다.
- ③ 서정 갈래는 운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갈래와 가깝지만 차이가 있다.
- ④ 서정 갈래는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⑤ 서정 갈래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의미를 표현한다.

14 문학은 본래 형태가 없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에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창조하는 예술이므로 추상화의 기법으로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마지막 문단에서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 즉 내용, 형식, 표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
- ②, ③ 2문단의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예술'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⑤ 2문단의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15 문학 작품은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다.

16 이 시는 회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을 긍정적인 것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을 부정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통념에 근거하여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1 화자인 '나'는 소외된 존재인 '할머니'와 '동사자'에게 최소한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시적 대상인 '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며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즉 화자는 '할머니'와 '동사자'를 연민과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는 추상적 대상인 '슬픔'과 '기쁨'을 각각 '나'와 '너'로 의인화하고 시적 화자와 청자로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 ② 일반적으로 '슬픔'보다 '사랑'을 소중히 생각하는데, 이 시에서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표현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야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 ④ 시에서는 반복법을 사용하면, 운율을 형성하며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졌다'를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형식적 측면(운율 형성)과 내용적 측면(의미 강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 ⑤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이므로 슬픔이 기쁨에게 하려는 말, 전달하려는 것 등을 생각하며 시를 감상하면 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시인이 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02 (나)는 문학 작품과 구성 요소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나)에 비추어 볼 때 (가)는 가치 있는 주제를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예술이다. '색채'와 '형태'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미술이고, '몸짓'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무용이 된다.

03 <보기>에서 서정 갈래는 화자가 주관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문학 양식이라고 하였다. (가)는 '슬픔'과 '기쁨'을 각각 시적 화자인 '나'와 시적 대상인 '너'로 의인화하여 이기적인 삶을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으므로 화자의 주관적 정서가 드러나는 서정 갈래라고 할 수 있다.

배경지식 더하기 문학의 갈래

서정 갈래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문학 양식
서사 갈래	주인공이 세계와 대립하면서 전개되는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문학 양식
극 갈래	주인공과 세계의 대립을 그리지만 서사 갈래와는 달리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직접 보여 주는 문학 양식
교술 갈래	외부의 대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고 성찰하는 특징을 지닌 문학 양식

04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인 '나'가 시적 대상인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평등한 사회의 중요함을 깨우쳐 주겠다는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진솔과 의미가 통한다.

05 '유기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와 <보기>는 모두 '나'라는 시적 화자가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풍자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 역시 비유적 기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주겠다'가 반복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는 계절적 배경을 시적 분위기 조성에 활용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이러한 기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와 <보기> 모두 상황의 가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배경지식 더하기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기다림
주제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의 절실한 심정
특징	•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 02 서사 갈래의 이해

확인 문제

» 031~043쪽

- |       |      |        |                    |      |
|-------|------|--------|--------------------|------|
| 01 ③  | 02 ⑤ | 03 못난이 | 04 ⑤               | 05 ③ |
| 06 ①  | 07 ② | 08 ⑤   | 09 영뚱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 10 ③ |
| 11 반편 | 12 ⑤ | 13 ③   | 14 ⑤               | 15 ④ |
| 16 ①  | 17 ③ | 18 ④   | 19 ⑤               | 20 ④ |
| 21 ④  | 22 ③ |        |                    |      |

01 이 작품은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작품 속의 인물이다.
- ② 어리숙하고 무지하거나 나이가 어린 인물이 소설 속 서술자 역할을 할 때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한다.
- ④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⑤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그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특정 인물을 관찰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02 (가)는 소설의 구성 단계상 배경 및 등장인물을 소개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발단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는 절정 부분이다.
- ② 사건이 구체화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는 전개 부분이다.
- ③ 사건의 극적 반전의 계기가 제시되는 단계는 위기 부분이며, 절정 부분에서 사건이 반전된다.
- ④ 갈등이 해결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는 결말 부분이다.

03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에서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 황수건을 '못난이'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 (다)에서는 주로 서술자인 ‘나’와 황수건의 대화 내용을 서술(간접 제시 방법, 보여 주기 방식)하여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비해, (라)에서는 황수건의 내력과 관련된 정보를 요약하여 서술(직접 제시 방법, 말하기 방식)하여 사건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다)와 (라) 모두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05 (다)에서 황수건의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황수건이 ‘나’에게 자기 가족에 대해 소개하기만 하였을 뿐, 가족을 자랑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와 (라)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 ② ‘나’는 아직 개를 키우지 않고 있다고 하였을 뿐, 이전에 개를 키웠는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④ 황수건은 ‘나’의 집을 알고 난 이튿날에도 저녁 아홉시가 지나서야 ‘나’의 집에 들어섰다고 하였으므로 제시 간에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가 황수건의 내력을 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이 내력을 바탕으로 황수건의 행동을 이해했는지는 (다)와 (라)를 통해서 알 수 없다.

06 ‘이건 재미있는 말이다’라는 진술은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게 엉뚱한 말을 하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07 ‘나는 그와 지껄이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 등에서 ‘나’가 황수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직접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성북동’인데, 이곳이 시골이라는 진술이 작품의 앞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공간적 배경 자체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황수건이나 서술자인 ‘나’를 비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제시된 부분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제시된 부분에서는 황수건이 원배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사회 현실에 좌절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08 황수건은 신문사의 원배달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나’가 신문사 사장쯤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 하였다고 말하는 대목을 고려하면 황수건이 신문사 사장이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좋아하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황수건의 평생 소원이 원배달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황수건이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을 부러워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 ②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에서 황수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 ③ ‘나’는 황수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와 대화하기를 즐기고 있으므로 ‘나’가 황수건과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난 뒤 웃음 짓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 가지고 그러느냐’에서 가족들이 ‘나’가 황수건과 대화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9 아무런 맥락이 없는 질문이나 시기에 맞지 않는 질문 등을 하는 모습을 통해 황수건의 엉뚱한 성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10 (사)는 원배달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황수건이 이틀 동안 오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 방울 소리 요란스럽게 처음 보는 사람이 원배달로 나타나는 장면으로, 이 장면에 원배달이 되지 못한 황수건의 반응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황수건이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 원배달이 오는데, ‘나’는 황수건이 온 줄 알고 뛰어나간다. 이를 통해 황수건이 오지 않는 동안 ‘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신문을 들고 들어선 사람이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있으므로 보조 배달이 아니라 원배달임을 알 수 있다.

④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니다.”라는 원배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나’가 황수건이 원배달부가 못 된 것뿐만 아니라 보조 배달부도 잘린 것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1**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니다.”라는 말에서 황수건이 모자란 인물이라서 원배달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낮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반편’이란 말에서 황수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아)에서는 황수건이 삼산학교에서 일하던 시절, 도 학 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왔을 때 자기류의 만담 삼매경에 빠져 종 치는 것도 잊어버린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노랑 수건’은 황수건의 별명이며,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아)에서는 ‘나’가 황수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 뿐, 내면 심리를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삼산 학교가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 공간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공간의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아)의 일화는 서술자인 ‘나’가 관찰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다.

**13** 이 작품은 작가가 창조한 황수건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작품 속 인물이자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주인공과 관련된 사건이나 일화를 서술하고 있는 서사 갈래이다.

**오답 풀이**

① 황수건에 대한 일화와, 황수건과 ‘나’의 대화 등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황수건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글은 서사 갈래로

대화와 서술의 방식으로 전개되며, 대화와 행동만으로 전개되는 것은 극 갈래이다.

② 이 글에서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황수건에 관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며, 황수건의 성격이나 생각은 주로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함축적 언어를 통해 황수건의 정서를 표현한 부분은 없다. 함축적 언어는 문학 갈래 대부분에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주로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서정 갈래이다.

④ 이 글을 읽은 독자는 황수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서사 갈래의 주된 목적은 계도가 아니라 주로 감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도나 성찰을 드러내는 갈래는 교술 갈래이다.

⑤ 서사 갈래에 등장하는 인물은 작가가 허구적으로 만들어 낸 인물이다. 또한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글은 설명문과 같은 정보 전달의 글로, 서사 갈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자)는 황수건이 장난말에 휘말리는 내용이고 (차)는 삼산학교에서 쫓겨났던 황수건이 새로 들어온 급사에 대해 엉뚱한 생각을 하는 내용으로, 황수건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어느 선생의 장난말에 황수건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너희 색시 달아난다.”라는 말을 황수건이 제일 무서워했다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 나오고 만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 달라고 줄라 댁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근력’은 삼산학교에서 쫓겨났던 황수건이 새로 들어온 급사에게 덤벼 보려고 확인을 하는 대목에서 나온 소재로, 이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난다.

16 서술자인 ‘나’는 어리숙하지만 순박한 인물인 황수건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에게 장사 밀천까지 대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황수건에 대해 연민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황수건에게 ‘나’가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황수건은 윤금보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 황수건이 ‘나’의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황수건이 ‘나’의 질문에 동문서답(東問西答: 묻는 말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함. 또는 그 대답)하고 있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독야청청(獨也靑靑):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여 봄.
- ⑤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18 (카)와 (타)에서는 주로 황수건과 ‘나’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나’와 황수건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서술자인 ‘나’는 황수건에 대해 호의와 연민의 태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인물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제시된 부분은 대체로 긴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제시된 부분은 황수건과 ‘나’의 일화이므로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려 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황수건이 달밤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서 그의 답답한 심정을 엿볼 수 있지만 황수건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없다.

20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 황수건이 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상황에 처한 것이 신분 제도로 인한 억압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② 포도를 훔쳐서 ‘나’에게 보답하고자 한 황수건의 태도에서 ‘나’에게 고마워하는 황수건의 마음(순정)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는 황수건에게 연민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
- ③ 담배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황수건의 고달픈 심정을 대변한다.
- ⑤ 포도를 훔쳤던 황수건의 안타까운 처지와 담배를 피우는 그의 답답한 심정을 고려하면 독자들이 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1 ‘나’는 며칠전 포도를 훔쳐 자신에게 가져다주다가 포도원에서 나온 사람에게 먹살이 잡혀 끌려갔던 일을 황수건이 기억하고 무안해할까 봐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를 배려하고 있다.

22 ‘달밤’은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의 정서를 암시하고 서정적,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 인물들의 과거 환기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달밤이라는 배경을 제시하여 결말을 맺음으로써 여운을 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 ②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아내마저 도망간 황수건의 불우한 처지와 밝은 달밤은 대조를 이루면서 황수건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달밤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면서 결말이 비극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는 황수건에 대한 ‘나’의 정서가 나타난 부분으로, 달밤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      |
|------|-------|------|-----------|------|
| 01 ① | 02 ⑤  | 03 ⑤ | 04 평면적 인물 |      |
| 05 ③ | 06 ③  | 07 ④ | 08 ⑤      | 09 ② |
| 10 ⑤ | 11 연민 | 12 ⑤ | 13 ①      | 14 ④ |
| 15 ④ | 16 ⑤  | 17 ④ | 18 소외     |      |

- 01 이 작품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성북동에 이사하여 황수건이라는 어리숙하지만 순박한 인물을 만나 관찰한 것과 생각한 것,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 등을 서술하면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02 반편이어서 신문사 원배달부가 되지 못하였으며, 버릇을 고치지 못해 삼산학교에서 쫓겨나고, 참외 장사에 실패한 뒤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나’에게 보답하려고 한 어리숙한 인물인 황수건이 사회적으로 처신을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03 ‘노랑 수건’은 황수건의 성이 ‘누를 황’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별명으로, 황수건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
- 04 황수건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숙하고 순박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05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 ‘나’가 황수건이라는 인물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찰한 것과 평가한 것,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관찰에 입각하여 사실만을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6 이 작품에서는 황수건과 ‘나’의 대화는 보여 주기 방식으로 서술하고, 황수건의 내력은 말하기 방식으로 서술함으로써 내용에 따라 사건의 전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말하기 방식에만 해당한다. 보여 주기 방식은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멀다.
- ② 객관적 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서술이 없는 대화와 행동만으로 이루어진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객관적 거리에서 인물의 행위를 전달하는 것은 보여 주기 방식에만 해당한다.

- ④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말하기 방식이며, 보여 주기 방식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평가가 제시되지 않는다.
- ⑤ 보여 주기 방식은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인물의 심리를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은 말하기 방식에만 해당한다.

07 ‘나’는 황수건이 원배달부가 되지 못했을 때 가까운 친구가 사업에서 실패한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세상의 야박함을 원망스러워하였고, 그가 가져온 포도를 은근한 순정의 열매로 생각하며 맛을 음미하면서 아껴 먹는 다. 이를 통해 ‘나’는 정이 많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08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성북동’은 문안에서 떨어져 있어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이다. 변두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므로 작품 속에서 이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09 ㉠에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30년대는 실업자와 결연, 궁민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가는 가난한 시대로, 힘든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황수건과 같은 어리숙하고 모자란 인물이 더욱 배척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넉넉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쌀독에서 인심 난다.’가 가장 관련이 깊다.

**오답 풀이**

- ① 그물에 든 고기 신선: 이미 잡혀 움짱달짝 못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

10 달밤에 황수건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그의 고단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현실 극복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황수건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이지만 ‘밝은 달빛’을 통해 작품의 서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황수건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는 뜻의,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을 부르는 것을 통해 삶에 지친 그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나’가 황수건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은 포도를 훔친 일로 그가 무안해할까 봐 배려한 행동이다.
- ④ 노래를 다 외우지 못하는 황수건의 모습에서 그가 우둔하고 모자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1 @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여 서술자의 감정을 이입하는 대목으로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 서술자인 ‘나’는 주인공인 황수건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2 <홍계월전>과 <달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실 속 어디에선가 일어날 법한 이야기이므로 개연성 있는 허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무형식의 자유로운 글은 수필로, 교술 갈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②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은 전기문이나 설명문과 같은 글이다.
- ③ 행동과 대사 위주의 글은 희곡이나 시나리오와 같은 극 갈래의 글이다.
- ④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글은 서정 갈래이다.

13 ‘평양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십만 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라는 말에서 천자가 계월의 본색을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어이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탄로 날 것이다.’라는 계월의 생각에서 알 수 있다.
- ③ 정체가 탄로 나게 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계월을 보고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④ ‘계월이 슬픔에 잠겨 우는 모습은 ~아름다우며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에서 알 수 있다.
- ⑤ 계월이 천자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알 수 있다.

14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입장에서 모든 사실을 서술한다는 진술이 적절하다.

15 계월이 자신이 여자임을 천자에게 고하고 죄를 청하는 것을 통해 이들의 갈등 원인이 계월이 여자임을 숨긴 것임을 알 수 있다.

16 이 작품은 서사 갈래이므로 인물, 사건, 배경을 설정하여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한다. 즉 이 작품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극 갈래의 특성이다.

**배경지식 더하기** 소설과 희곡의 비교

구분	소설	희곡
공통점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다룸.	
서술자의 개입	있음.	없음.
시제	주로 과거형	현재형
등장인물의 수	제약이 없음.	제약이 있음.
시간, 공간	제약이 없음.	제약이 있음.
전달 과정	읽는 것을 전제로 함.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함.
표현	대화, 서술	대사, 행동
인물의 심리 분석	인물의 직접적이고 세세한 심리 분석, 내면 탐구가 가능함.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함.

17 <달밤>은 소설이다.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이므로 주인공 황수건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창조해 낸 가상의 인물이다.

**오답 풀이**

- ①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을 관찰하고 그를 통해 느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들은 이야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달밤>에서 ‘나’는 서술자이고, ‘나’가 관찰한 인물인 황수건이 주인공이다.

③ 공간적 배경은 사대문 밖에 있는 '성북동'으로, '나'가 성북동을 '정말 시골이군!'이라고 한 것에서 당시 성북동은 시골 변두리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달밤>에서는 '나'가 황수건을 관찰하며 겪은 일화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일화 등 다양한 일화를 제시하여 황수건의 어리숙하고 모자란 인물됨, 순수하고 착한 심성 등을 보여 주고 있다.

18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자란 인물(황수건)과 여성임을 숨기고 활약하는 인물(홍계월)은 모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소외된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052-056쪽

- |      |      |  |      |      |
|------|------|--|------|------|
| 01 ⑤ | 02 ③ | 03 ③   | 04 ④ | 05 ③ |
| 06 ④ | 07 ⑤ | 08 '눈물', '한숨'과 같은 노래의 내용으로 보아 고단한 삶에 지친 황수건의 심리를 알 수 있다. |      |      |
| 09 ④ | 10 ④ | 11 ⑤   | 12 ① |      |

01 이 작품은 순박하지만 어리숙하고 모자란 인물인 황수건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나 고된 삶을 사는 것을 서술자인 '나'가 관찰하여 전개하고 있다. 서술자 '나'는 1930년대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신문을 받아서 보는 지식인 계층이기는 하지만 신문 보조 배달부인 황수건과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나'는 황수건에 대해 연민과 호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서울의 외곽 지역인 '성북동'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변두리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작품 속에서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인 '나'는 황수건에 대해 우호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황수건을 신문 보조 배달부로 설정한 것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개'에 대해 언급하는 황수건의 모습에서 그의 엉뚱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02 이 작품은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해 관찰한 내용과 느낀 바를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황수건에 얽힌 일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을 뿐, 인물의 출생부터 성장, 죽음에 이르는 일대기적 구성은 보이지 않는다.
- ② 황수건에 얽힌 사건을 '나'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황수건에 대한 여러 인물의 관점을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과 겪은 사건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을 뿐, 황수건의 속마음까지 아는 전지적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서술자인 '나'는 황수건을 못난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은 황수건의 행동을 회화화한 것이긴 하지만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 서술자인 '나'는 황수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있고 '순박한 시골 정취'를 돋워 준다는 서술에서 황수건에 대한 '나'의 인상이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② 밤 열 시라는 늦은 시간을 고려하지 못하고 소리를 짹 지르는 황수건의 모습에서 그의 모자란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은 황수건의 우스꽝스러운 외모를 서술한 것으로 황수건을 '못난이'라고 평가한 서술자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나'가 편안하게 잘 자기를 바라는 황수건의 말에서 그의 순박하고 착한 성품을 확인할 수 있다.

04 '나'는 황수건이 어리숙하고 모자란 인물이어서 연민을 느끼고 있지만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05 <보기>와 같이 황수건이 모자란 인물이라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든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산학교의 급사를 몰아내고 자신이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며 허세를 부리는 황수건의 모습은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티끌 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거미가 사람의 입 안에 거미줄을 치자면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 식량이 떨어져도 사람은 그럭저럭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가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

06 황수건이 질린 얼굴로 포도원 사람에게 잡혀 간 이유는 포도를 훔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수건이 힘 센 자를 두려워하는 인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7 ‘나’는 황수건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보면 지난 일로 무안해할까 봐 그를 배려하기 위해 피한 것이다.

08 ‘눈물’과 ‘한숨’이라는 노래의 내용을 고려하면 황수건의 삶이 고단함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노래의 내용과 황수건의 처지를 참고하여 황수건의 심리를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6점
황수건의 심리는 맞게 서술했으나 <조건>에 맞지 않게 서술한 경우	3점
너무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9 이 작품과 <달밤>은 모두 서사 갈래이므로 주인공과 세계가 대립하면서 전개되는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다는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10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계월의 심리까지 모두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와 사건을 모두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이 적절하다.

11 계월이 어의의 진맥 후 자신의 성별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어의가 나의 맥을~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천자가 계월의 상소문을 읽고 용상을 친 것은 뒤에 이어지는 천자의 말을 고려할 때 계월이 비록 여자이지만 벼슬을 거둘 수 없다는 심리에서 나온 행동이지 자신을 속인 계월의 배포에 탄복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② 계월이 자신이 여성임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이다.
- ③ 어의의 진맥 후에 천자가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십만 군을 섬멸하고 왔겠는가?’라고 말한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남성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계월이 공을 세우지만 남장을 한 채로 이러한 업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여성임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여성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어의의 진맥 후 여자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규중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는 계월의 모습에서 당시의 제한된 여성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